

定慧社

여름호 · 제19호 불기 2543년



松廣寺 傳統講院
송광사 전통강원

도량은 수행하는 곳이다

‘먼저 수행이 있고 나서 도량이 마련되었다’ 이는 송광사 초입 비문의 서두이다. 도량은 수행하는 곳이며 수행하는 곳만이 도량이라는 것을 잘 표현한 글이다.

도량은 또 다른 세상이다.

도량은 부처님을 모시고 기리는 신성한 의식의 공간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수행의 공간이며, 대중이 화합하여 살아가는 생활의 공간이다. 하나 비좁은 국토의 현실과 유려한 산천에 위치한 가람의 특성상 우리만의 사용을 고집한다면 한 집단의 이기로 비쳐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배객과 관광객들에게 당부드린다.

‘이곳은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정진하는 수행처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나, 이 짧은 글귀만으로 그들을 일깨우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모두들 너무나 바쁜 나머지 작은 표지판 하나 읽어볼 여유가 없는 것이다. 무엇이 그리 급하고 바쁘기만 한 걸까? 신도님들은 고요한 산길을 먼지 휘날리며 썩썩 달려오고, 수학여행 온 학생들은 소란스럽게 서둘러 횡하니 둘러보고 단체 사진 한 장 찍고는 다음 코스로 이동하기에 바쁘며, 자연을 찾아 떠 나온 사람들마저도 세속의 잡다한 이야기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설새없이 떠들기에 바쁘다. 또 다른 세상과 만날 땐 내가 살던 세상의 생각들은 잠시 쉬어야 함에도 말이다.

요즘 사찰 주변환경 문제로 시끄러운 곳들이 많다. ‘가야산 골프장 건설문제’는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석남사 주변의 유흥업소문제’ 등 곳곳에서 도량을 지키자는 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도량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민족과 함께 해온 가람은 특정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한민족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문화유산이다. 물질적 이기에 몰려 정신문화가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제는 外護만을 기다릴 수 없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겸허하게 우리 스스로의 마음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모든 불자와 스님들이 가람을 부처님의 몸과 같이 여길 때 비로소 바깥 세상에서의 시각도 달라질 것이다.

깊은 산 웅달샘이 세상의 물을 맑게 하듯이 우리의 수행이 과거 선지식들처럼 여법하여 세상에 밝음을 주는지 향시 돌아봐야 할 것이다. 세상이 갈수록 물질화 되어 갈 때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은 물질의 이기에 물들지 않는 우리의 수행뿐이겠기 때문이다.

도량은 수행의 공간이다. 수행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 우리의 여법한 수행만이 시대에 맞는 도량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定慧社

여름호 · 제19호 불기 254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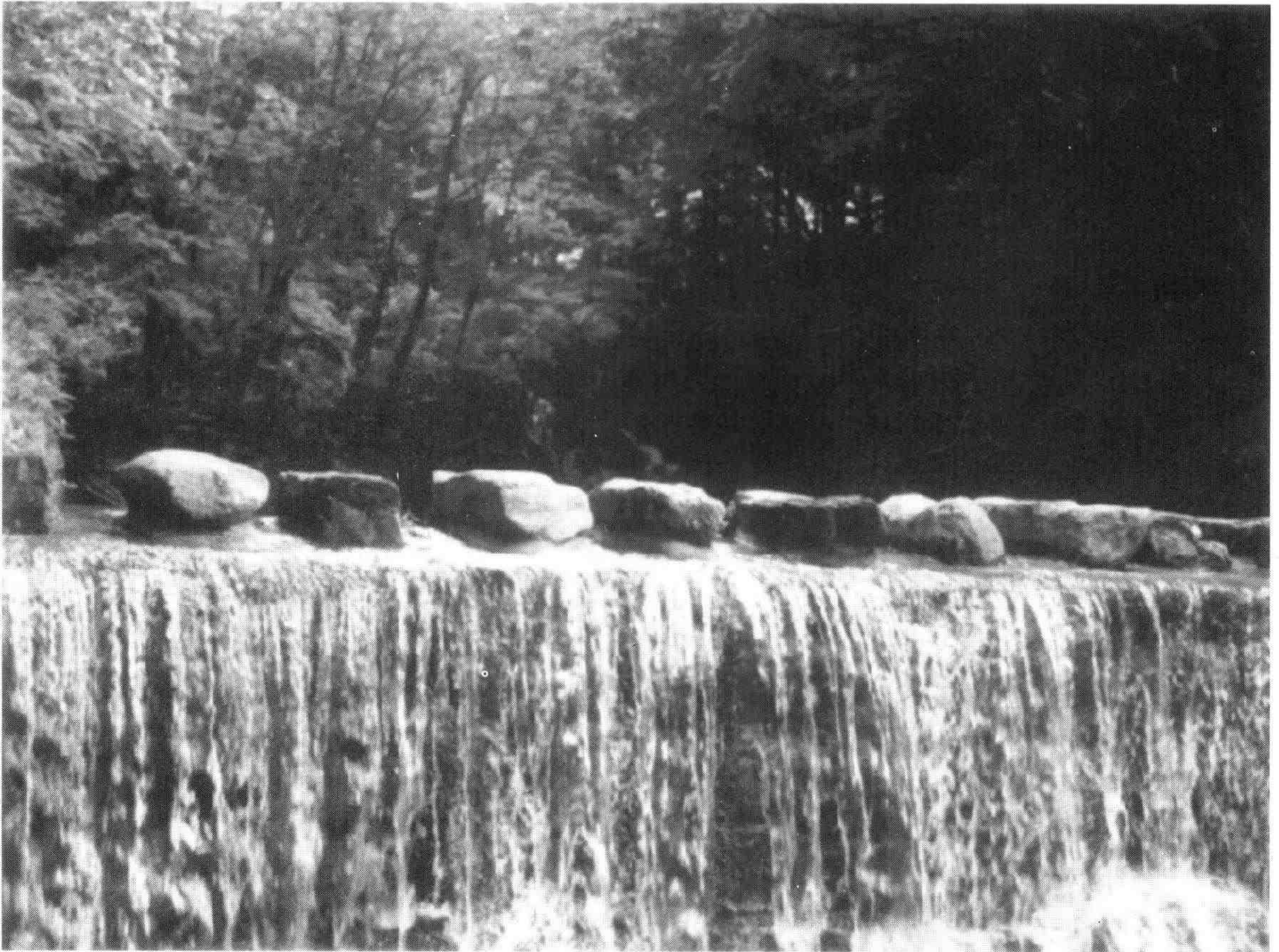
발행처/송광사 강원
발행인/智雲(講主)
편집인/응진(입승)
편집장/보각
편집/진관, 연일, 도현, 고웅
사진/신범

발행일/2543년 8월 10일
주소/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61)755-5300, 5302

편집 · 인쇄/도서출판 法供養

조계의 물소리	편집부	
사진 속 이야기	편집부	· 2
교수논단	전통을 중심으로 본 강원발전의 일대안	지운 · 4
특별기고	흙 이야기	지묵 · 8
정혜탐방	혜국스님	편집부 · 10
경전 한구절	잡초	편집부 · 18
회광반조		
발보리심	응진	· 19
물을 바라보며	진관	· 22
지금 내가 사는 것	중현	· 24
말의 여백	법공	· 26
생과 사, 그리고 출가	보월	· 27
입방기		
나의 강당생활	마천	· 29
또 하나의 실수	신범	· 30
화보와 소식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 32
기획연재	2세조사 진각국사 혜심	편집부 · 36
지대방이야기		
삼일간의 도량석	염하	· 41
모기도 佛性이...	도현	· 42
어느 비내리는 여름날의 생각	보국	· 43
바람소리 한자락		
심양에서 온 편지	석명화, 석명실	· 45
출가후 그리고...	연덕	· 46
순례기	금강산순례기	회진 · 48
학인논단		
삶의 자유	원각	· 51
불교의 미래를 생각하며	정산	· 52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묘각	· 54
정혜사 안내		
편집후기		





나는 버리기 위해 건너 왔으며
떠나기 위해 이곳에 머무릅니다.
중생과 돌 아닌 그곳으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시·사진 / 편집부

전통을 중심으로 본 강원 발전의 일(一) 대안

- 부처님의 출가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

지운(智雲) / 松廣寺講院 講主

1. 講院의 無氣力症

강원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강원의 무기력증이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거나 공부하려는 의욕은 없고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 학인스님들은 학인스님들대로, 강사스님은 강사스님대로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기존 강원의 구조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강원의 현실이다. 학인스님들은 강원로 들어온 이유나 목적에 대해 뚜렷한 점검 없이 회의하면서, 현재 강원의 구조가 현대와는 유리되어 과거의 것을 답습하고 있으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俗退 내지는 자퇴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한다. 오래전부터 宗團내에서 문제시되었던 이같은 현상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 (1) 교과과정의 禪위주 편성문제
- (2) 열악한 교육환경
- (3) 교육방법의 낙후성
- (4) 부족한 강사수와 자질문제
- (5) 강원졸업하고도 타 대학에 입학
- (6) 대학과의 비교에서 교육시스템이 뒤떨어짐을 들어 대학으로 명칭 전환
- (7) 국가인가문제
- (8) 학인정원의 상하한선과 사미(尼) 衣制문제

1. 講院의 無氣力症
2. 강원의 두 가지 공부기능
3. 무기력증의 원인
4. 왜 부처님의 출가정신이 필요한가.
5. 認識 轉換이 강원발전의 요건이다.

승가대학령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많은 현안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강원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이면에는, 강원은 시대와 사회에 낡고 뒤떨어진 것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비판의 기준은 세속의 대학교육이다. 그러한 인식이 오히려 전통강원을 지금의 왜곡된 모습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이력을 제대로 마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4년으로 기한을 정했다거나, 대학의 교수처럼 강사는 강의만 하고 학인들의 습의나 위의, 생활문제에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공부방식은 논강이나 문답식이었는데 일방적인 강의방식으로 바뀐 점이나, 강원을 승가대학이

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중의 하나이며 조계종 교육원의 교육원이라는 이름에서도 그 영향을 읽을 수 있다.

2. 강원의 두 가지 공부기능

강원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강원의 공부 체계가 완전하게 기능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강원의 공부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강원의 전통적인 두 가지 공부 기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과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면서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는 기능이 그것이다.

첫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교육적 기능이다. 강원의 교육적 기능은 발심과 신심을 일으키게 하고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삼아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강원의 교육적 기능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게끔 방향을 제시해주고, 방법과 그 과정 그리고 깨침의 경지를 가리켜 禪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적 기능은 그 가르침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실현시키는 또 다른 공부기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적 기능을 다하



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두 번째의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면서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는 공부 기능'이다. 이것은 대학에는 없는 강원만의 전통적인 공부방법으로 看經, 坐禪, 발우공양, 예불, 상강례, 독경, 威儀 등 자기가 자기에게 가르치는 직관적 수행 체계이다.

첫번째의 공부기능인 '스승에게 배우는 것'은 佛敎와 祖敎이고, 두 번째 기능인 자기가 '자기에게 배우는 것'은 禪이다. 기본적으로 교와 선의 관계는 밀접하다. 즉 敎는 깨달아 가는 방법과 과정,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 자체에 대한 것 등을 기술하고 있다. 때문에 禪은 敎의 指示로 직접 실천 되어야만 禪인 것이다.

선지식으로서의 강사는 敎와 禪를 一致시키는 데에 그 중요한 역할이 있다. 물론 교를 학인스님에게 敎授하는 것은 知識전달이 아니다. 불교를 공부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知識의 대상으로서 '불교를 배운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며 智慧開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괴롭고 힘든 삶에서 출발해야만 내외적 평안과 평화로운 삶을 깨닫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佛敎나 祖敎의 참뜻이 있기에, 삶을 떠나 敎를 배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禪의 안내서인 교나 敎禪實修할 수 있도록 길잡이하는 講師가 필요없으며, 출가의 목적인 개인의 畚上求菩提와 사회의 畚下化衆

生]를 해결하기 위한 깨달음과는 무관하게 된다.

따라서 이론과 실천을 함께 겸행하는 것이 바로 敎禪一致이며, 禪敎兼修의 기능을 갖춘 곳이 바로 講院인 것이다.

3. 무기력증의 원인

강원을 비판하게 되는 것은, 교육적인 기능만으로 강원을 이해하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는' 수행적 측면의 공부기능을 간과하는 데에서 기인된 것이다.

대학에서의 불교공부는 수행적 측면이 배제된 知的 學問的 성취에 지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지식의 함양은 될지언정 자신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삶과는 거리가 있다.

그와 같은 불교학은 언어문자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어디까지나 추리적이고 추상적이다. 추상적인 것은 모두 가상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은 추리에 의해 규명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강원의 강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깨침으로 인도하는 지혜계발에 역점을 둔 길라잡이가 그 역할이다. 그런데 강원에서 중시되고 행해져야 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직관적 기능'을 단지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인식하여 세속의 대학교육적 기능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단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것은 종단

의 근시안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나아가 열악한 강원 현실을 조성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강원생활에서 수행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불, 발우공양, 간경 등이 자기 삶을 해결하는 직관적인 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예불에서 빠지는 불성실한 태도, 발우공양을 상공양으로 대치, 간경시간에 즐기, 三更 후 마을에 내려가기 등의 습관이 들게 된다. 또 상반과 하반의 군대식 관계가 이루어지고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성향을 띄면서 세력화되는 등의 個人我와 集團我가 표출되는 현상이 강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스승에게 배우는 교육적인 방법으로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아무리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기능이 죽어있는 한, 佛敎나 祖敎는 추상적으로 다가오고 자기 삶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출가정신의 회복이야말로 이러한 강원의 亡宗的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4. 왜 부처님의 출가정신이 필요한가

강원의 강사, 학인스님들의 무기력증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자신의 삶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기능에만 의존하여 현실감을 상실한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죽어 있는 '자기가 자

기를 가르치는' 기능을 되살려서 현재 자신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란 출가동기를 철저히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곧 發菩提心を 말한다.

발보리심이란 곧 부처님의 출가정신이다. 발보리심의 내용은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최초의 願이다.

發菩提心은 세상의 괴로움을 느끼는 것에서 비롯된다. 개인이든 사회이든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진리를 찾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발심, 곧 發菩提心인 것이다. 괴로움을 겪어 보지 않으면 진리를 깨치고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發菩提心이란 '최초의 바른 願이다. 괴로움의 제거가 최우선이므로 '최초'이고 그 괴로움을 제거하는 방법에서 진리를 깨치므로 '바른 것'이며, 이 방법으로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므로 '願인 것이다.

출가자는 반드시 출가동기를 가지고 있다. 출가의 동기가 발보리심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그 출가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하나는 출가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 무관심으로 빠지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의욕이 세속화되어 정치승이나 명리승 등으로 빠지는 경우이다.

따라서 출가자의 출가동기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上求菩提 下化衆生하겠다는 誓願에 부합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출가동기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그 깨침을 모든 이들과

함께 하는 하화중생으로의 發心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출가자는 이것이 바로 출가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출가자의 출가동기가 이러한 바른 發心으로 시작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불법 학습이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비록 출가의 첫 마음자세가 뚜렷하지 못하였다더라도 스승에게 불법을 배워서 새롭게 發心하고, 올바른 믿음을 정립하여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수행도량인 강원이다.

5. 認識轉換이 강원발전의 요건이다.

이와 같이 강원의 교육적 기능과 수행적 기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두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발보리심하는 출가동기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즉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강원의 두 가지 기능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하나의 틀에서 강원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부처님의 출가정신에서, 즉 발보리심에서 강원의 체제나 기능을 조망해야만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대다수 학인들은 강원의 짜여진 수행체제를 구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삶의 본질적인 물음에서 공부를 시작하면, 강원의 틀은 삶의 본질적인 물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강원체제를 의지하여 자기의 삶을 조명하면서 의문을 풀어갈 수 있다. 즉 삶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 식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강원의 모든 체제와 기능이 역동적이게 된다.

그러나 삶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

기로서의 發菩提心과 신심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강원체제라는 틀 속에서 공부하게 되면 그 틀이 하나의 구속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심리적으로는 피폐해지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어져 자기가 무엇 때문에 강원체제에 갇혀서 공부하는지 의문이 생기면서 회의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때 강원체제는 자기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구속이며 방해로 작용하는 도구로 인식되기 때문에 강원의 모든 것들이 낡고 전근대적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이것은 출가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또 하나의 현실에 안주한,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주목하는 격이 된다.

전통강원을 살리는 방안을 기존 강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들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되고 낡아빠진 교과를 중심으로 교리의 면지를 털어 내는 일이 될 뿐이며, 수행기능은 쓸모가 전혀 없는 형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강원의 교육적 기능은 대학의 교육적 기능보다 못한 것으로 되고 수행기능은 도리어 기초선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처나 조사의 가르침과 禪 수행은 發菩提心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낡은 것'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공부한 것이 진정한 내면의 변화로 나타날 때 비로소 끊임없이 새롭고 신선하고 생동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론은 낡아가고, 그것을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종류의 세속적 이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부처님의 출가정신으로 되돌아가는 인식전환의 차원에서 강원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발심과 신심을 일으키고 바로잡는 강의와, 신심을 증장 성숙시키는 수행적 기능을 강화해야만 한다. 옛날 강원은 좌선시간이 있어서 강원졸업과 동시에 안거증을 주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과과정문제, 교수문제, 學

人數의 하한선과 상한선, 문교인가문제, 사미(尼)衣制문제 등도 발보리심과 신심의 시각에서 재조명 되어야만 이 강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기고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인數의 상하한선 문제는 대학교육의 체제에서 바라본 것으로, 학인을 교육이라는 틀에 집어넣어 붕어빵처럼 찍어내자는 사고방식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구조 속에 집어넣어 교육과 기초수행을 시켜도, 출가동기인 발보리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인의 탈선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강원 발전을 위해서 강원의 구조나 기능 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發菩提心에서 바라봐야만 한다. 발보리심은 고탄 제거하고자 하는 願이며, 강당의 체제나 기능이 모두 이 원을 충족시켜주고 해결해 주는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발보리심의 願이라는 시각에서 강원을 재조명하여야 한다.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되돌아보고 發菩提心과 信心의 입장에서 강원을 볼 수 있는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수행방법론에 대한 토론

불교학은 發菩提心과 信心이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문제 해결은 發心과 信心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즉 어떠한 知識으로도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는 대답해 줄 수 없다.

교육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육인데 이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명번뇌를 제거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단지 스승의 가르침(佛敎와 祖敎)을 받으면서 직접 내면을 注視함으로써 무명과 번뇌의 정체를 알 수 있고 무명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고 동시에 받는 수행이다. 만일 교육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기아, 환경파괴, 종족갈등, 문화충돌 등을 이미 해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평화도 단지 일시적인 것뿐이다. 삶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이 교육의 한계이다. 교육이란 어디까지나 추리, 논리적인 것으로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은 추리나 논리가 아니므로 간접적일 수 없다. 현재 이순간 일어나고 있는 삶의 문제는 직접 대면하여 확인해야 하는 직접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자신의 내면을 직접 바라보는 도리밖에

없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동적이고 격한 소용돌이같은 마음을 단지 가르침만으로 제어하기란 역부족이다.

강원의 공부체계는 교육적인 공부기능과 수행적인 공부기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가르침은 지도와 같고 강사는 그 지도를 잘 볼 수 있도록 指導하고 引導하는 善知識이며, 修行은 직접 지도를 보고 그 길로 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강원의 두 가지 공부기능이 있으나 지금은 교육적인 기능만이 겨우 살아 있으며 수행적 기능인 예불, 간경, 독송, 백팔배, 좌선, 상강례, 발우공양 등은 형식만이 남아 있는 데에 불과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수행방법론에 주목하는 것은 새로운 인식전환을 의미하고 강원의 발전에 이정표를 세우는 것과 같다. 방법이 서툴거나 나쁘면 진리를 깨칠 수 없다. 수행방법론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보리심과 신심이 생기고 성숙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강원의 수행기능이 되살아나기를, 또한 문제점으로 가득찬 세계에 새로운 대안으로 강원의 수행기능이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 이 글은 2543년 7월 16일 전국강원연합 주최로 용주시 효행교육원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의 지운스님 기조연설입니다.

흙이 약이라는 근거는 옛부터 정설로 내려왔다. 흙은 대지(大地)로서 어머니, 동물까지도 몸이 아팠을 때에 스스로 땅을 파고 아픈 부위를 묻거나 지열(地熱)과 지기(地氣)를 쏘여서 상처를 치료한다는 이야기는 사냥꾼들의 일화에 나온다.

십여년 전의 일이다. 광훈(廣薰) 스님이 재무(財務)로 지낼 때였다. 3월 불사 기간 중에 불상사가 벌어져서 하마터면 한 사람의 목숨이 위독할 뻔하였다. 이 사건의 노보살은 참기름 애용자였다. 참기름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갈 정도였으니까. 노보살은 참기름 병을 챙겨서 여행도 떠나고 절에도 다니곤 하였다.

이번 3월 불사에 동참하기 위해 몇 가지 준비물을 챙기는 중, 박카스 병에 든 참기름 하나도 챙겨 넣었다. 그런데 어찌랴. 원료식초도 박카스 빈 병에 넣어 두어 자칫 혼동이 온 것을.

흙 이야기

지묵(知默) / 송광사 스님



노보살은 확인도 안 해보고 차를 탔다. 첫날 저녁은 짐이 든 방안에 사람이 꼭 차서 참기름 맛을 못 보았고, 이튿날 아침공양 때에는 죽이어서 역시 참기름 먹을 기회를 놓쳤다.

점심 때였다. 공양 배식으로 받은 식판을 재무실 앞 수각 주위에 놓고 참기름 병이 든 짐을 풀었다. 얼마나 먹고 싶었던 참기름인가!

노보살은 옆 사람이 행여나 보고 달라고 할까봐 겁이 났다. 얼른 참기름이 담긴 박카스 병 뚜껑을 열고는 목구멍으로 그대로 넘겼겠다.

“아 아.”

노보살은 가슴을 치며 박카스 병을 던지고는 뒹굴기 시작하였다. 그녀가 마신건 참기름이 아니고 원료식초였던 것이다.

보건소로 전화를 하려고 결의 재무실에 뛰어든 주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를 뿐 속수무책이었다.

“아이고, 어찌지요.”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어느 세월에 보건소 차가 와요?”

이때 광훈 스님이 맨발로 뛰어나가 물바가지에 황토흙을 한줌 퍼 담았다. 이 흙은 지붕 기와를 번와할 양으로 법성료(法性寮) 앞에 몇 차를 실어다 놓은 것이다.

바가지에 다시 물을 떠 담아서 한 손으로 휘휘 저어서 흙이 풀리도록 하

아무 흙이나 먹는 게 아니다. 오염이 안되고
사람의 손길이 묻지 않아야 제격이다.
산중에서 나무 열매와 뿌리로 배고픔을 달랠 수 있고
또한 흙으로도 밥의 대용을 할 수 있으니
어디가서 먹을 걸 걱정하라!

고는, 마당에서 똥구는 노보살의 입에 가져다 댔다. 노보살은 간신히 황토
흙물 두어 모금을 마시고는 약간 숨을 돌렸다. 다시 옆 사람들이 노보살을
부축하여 황토흙물을 반 바가지쯤 먹였다. 거짓말같이 되살아난 노보살!
이 일을 두고 광훈스님이 덧붙여 설명한다.

“천자암에서 활안(活眼)스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황토흙물을 먹여본 것이
지요. 활안 스님은 흙으로 만병을 고친다니깐요”

흙은 생명의 연장이다. 산중에서 깨끗한 흙만 먹고 산 사람들은 흙밥이라
고 이름 짓고, 시루떡처럼 찰이 생긴 흙을 먹고 산 사람들은 흙떡이라고 이
름 짓는다. 나 역시 솔잎과 흙이 구미에 맞아 많이는 복용하지 않았으나 간
혹 한두 끼니쯤은 먹은 기억이 있다.

한번 흙맛을 본 사람은 평상시 밥에 일부러 흙을 조금 섞어 먹는다고 하
니 흙의 맛은 가히 일미(一味)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아무 흙이나 먹는 게 아니다. 오염이 안되고 사람의 손길이 묻지 않
아야 제격이다. 산중에서 나무 열매와 뿌리로 배고픔을 달랠 수 있고 또한
흙으로도 밥의 대용을 할 수 있으니 어디가서 먹을 걸 걱정하라!

놀랍게도 문헌에는 흙으로 뽑은 흙국수(土麵)까지 있었다고 한다. 평양
잡약산(雜藥山) 기슭에서 나온 흙을 재료로 만든 흙국수 빛깔은 푸르스름
하고 맛은 달지도 쓰지도 않았다고.

이제는 산중이 아니면 흙을 밟고 다닐 곳이 없어졌다. 모두가 포장된 도
로인 탓이다.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다. 새벽 포행길에 시멘트 포장을 두텁게 한 산
길을 수련생 전원과 나섰다가 돌아오면서 아쉬움을 느낀 건 나만의 감상일
까? ‘절은 불사를 가급적 안하는 게 큰 불사(佛事)’라는 옛 사람의 말이 간
절하다.

‘규모는 크고 기간은 빠르게’ 진행되는 요즘 우리 주변의 불사 현장에서는
문명의 위력을 느낄 뿐 별다른 온기를 느낄 겨를이 없다. 당대에 제 이름으
로 불사를 했다는 상(相)이 사람과 산을 죽여서는 안될 일이다.

정혜담방

남국선원장
혜국(慧國) 스님



한반도의 끝봉우리 한라산은 보고자 하는 이에게는 안개이고 구름이었다. 그러하기에 아름다운 자태의 寒蘭을 키우며 오천년의 역사를 지켜올 수 있었으리라. 한라산 남쪽 돈내코에 자리잡은 무문관 남국선원. 출가지라면 한번쯤 꿈꾸어 보는 그 수행처의 선원장이신 혜국스님을 뵈러 가는 길은, 초학의 입장에서는 스님의 자비심만을 기대할 뿐이었다. 해인사 일타 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성철, 구산 큰스님의 지도로 두루 제방을 섭렵하신 혜국스님. 스님의 진면목은 형형한 눈빛과 연비현공한 손가락 등, 가늠하기 힘든 언어 이전의 세계였다.

편집부

결제중에 찾아와 죄송합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근황이란게 뭐 있나! 중은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아니라 늘
요즘이어야지. 아침 저녁 예불 모
시고 부처님 법 좋아서 항상 화두
들고, 부처님에 대한 생각하고, 중
은 그것 떠나면 따로 볼 것 없어요.

강원 사교반 다니시다가 선방으로
가셨는데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주 복잡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
터 선방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
는데 우선 강원을 다녔지. 사교반
때쯤 수필도 쓰면서 바깥 반연에
많이 꼬달렸어요.

성철스님께서 한번 올라오라고
하셔서 갔었는데 요즘 눈빛이 달라
졌다며 하루에 5천배씩 하라고 하
셨습니다. 처음엔 죽겠습니다. 하
루에 5천배씩 10만배를 하고 나니
또 다시 하라고 하셔서 기도를 했
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장경각에서 기도
를 하는데 절하는 시간이 후딱 지
나가더라고요. 몸이 거뜨하고 날아
가는 것 같았어. 자신도 모르게 신
명이 나서 절을 하면 일어나지고
또 절하고, 얼마나 좋던지 그냥 후
딱 지나갔어. 그 때 내가 중이 되었
다고 보지요.

‘만약 다른 길로 잘못 갔으면 어
떻게 될 뻔 했겠습니까! 부처님, 정
말 금생뿐만 아니라 다음생 다음생
에도 정말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손가락을 순간적으
로 태워 버렸어요. 성철스님도 우
리스님도 연비한 줄은 모르셨어요.

병원에 가서 손가락 뼈를 잘라냈

는데, 한 달을 치료해야 된다고 하
는데도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손에
붕대를 감은 채로) 태백산으로 들
어가버렸지. 태백산에서 밥 한 끼
먹지 않고 바로 생식을 하고 염분
을 먹지 않으니 체질이 바뀌고,
열기운이 다 빠져 그냥 아물어 버
렸어요.

그런데, 연비한 사람중에 나하고
한두 사람만 빼고는 거의 건강들이
나빠요. 연비하면 3-40분 타는데
그때 화독이 들어가서 열 안 찬 사
람이 없어요. 나는 그 정도 신심가
지면 절을 하든지, 목탁을 치든지,
참선을 하든지, 단식을 하든지 그
기운으로 다른 걸 하지 연비를 권
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나는 그때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직 한번
도 후회는 하지 않았습시다.

그때부터 참선을 시작했는데 처
음에는 어머니생각 아가씨생각에
참선이 되는게 아니라 한시간 앉아
있으면 57분은 망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도 먹고 싶은
밥 안먹고 술잎 뜯어먹고 풀잎 뜯
어먹고 생식하면서 그 첩첩산중 도
솔암에 앉아 있는데(장좌불와를 했
어요) 매일 망상이 나요.

하루는 배가 고파서 풀을 뜯어
먹었는데 잘못 알고 독초를 뜯어먹
었어. 그길로 죽었지. 영혼이 되어
이곳저곳 떠돌다 돌아와보니까 나
를 산삼캐는 처사가 엮고 내려가는
거야. 나랑 너무 닮은 사람이 엮혀
가길래 처사에게 물어보고자 혼드
니 처사가 자꾸 쓰러져서 어쩔 수
없이 산막까지 따라갔는데 아무리
봐도 코 생긴거나 눈 생긴거나 손
가락 없는거랑 나랑 똑같애. 이상

해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덕석에 눕혀놓고 손가락으로 입을
벌리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빨을
꼭 물잖아요.) 그때 이빨 두 개가
부서졌지. 이거야. (이빨을 보여주
심)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대답도 않고 들은 체도 하지 않아
서, 시체보고는 ‘스님, 보소 스님.
어찌 그리 나랑 똑같이 닮았소’하
고 손을 잡았는데 쑥 빨려 들어가
는 것 같아요. 그 때 정신을 차려보
니까 ‘내가 유체이탈해서 영혼이
돌아다니다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신심이 막 우려납디다. ‘정말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정말 이 몸
똥이는 잠깐 빌려쓰는 거지 정말
나는 따로 있구나. 부처님! 이후로
는 내똥똥이를 위해 산다든지 다른
생각으로 사는 일은 기필코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중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연비를 하고 나서도 진짜 중은
아니었어요. 억지로만 되더니 그
일이 지나고 공부가 조금 되기 시
작해. 그렇게 내 똥똥이 내버려두
고 돌아다니던 놈이 도대체 누군
고, 참나가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내 몸 안에 있는데 보려 하면 보이
지 않으니 정말로 기가 막힌 일 아
닙니까?. 이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
람은 모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
란 말인가’ 하고 억지로 억지로 앉
아 있으면 망상은 훨씬 적어지는데
그때부터는 잠이 그렇게 와요. 잠
이 많이 오길래 천정에 끈을 매달
아 놓고 머리에 두르고 참선하는데
자꾸 흔들리니까 턱부분이 벗겨져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
이 성철스님께 찾아갔는데, 당신이

쓰시던 철발우를 하나 주시면서 ‘수건을 동그랗게 해서 물을 올려 놓고 공부해 봐라’ 하시데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꾸만 떨어져요. 떨어지면 또 올려 놓고 또 떨어지고 한 시간에 스무 번도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날은 ‘나는 틀린 사람이다.’ 라고 그만 둘까도 생각하다가, 하루는 분명히 저녁 8시 30분에 올려놨는데 눈을 딱 떠 보니 해

‘내가 스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스님의 길이 아니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것을
第一戒로 삼으라 이릅니다.

가 떠오르더라고요. 벌떡 일어나니까 발우가 ‘꽝’ 하고 떨어지는데 찰나만에 다른 것이 보여요. 내 몸뚱이가 내 몸뚱이가 아니고, 내가 안되는 게 아니라 다람쥐도 될 거고 소도 될 거고 다 될 것 같더라고요. 그 길로 뒷산에 올라가 다람쥐와 산짐승들에게 “야 너도 된다, 너도. 이걸 누구나 되도록 되어 있다. 이걸 남의 것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완전 무결하게 있는 것을 다만 보지만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더벅머리로 쫓아 나왔죠. 성철스님, 경봉스님, 구산스님께 찾아 갔는데, 세 분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만 맞다고 그랬어요. 두 달쯤 그렇게 돌아 다니니까 희미해지대요. 그렇게 참선이 시작됐죠.

수행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선지식은 누구십니까?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신 선지식은 어렸을 때는 성철 큰스님과 은사스님이신 일타 큰스님이시고, 그후 몸이 아파서 상당히 힘들어 한 이후로는 거의 구산 큰스님이 많은 영향을 끼치셨죠.

구산스님하고 처음 인연은, 오대산 상원사에서 정진하고 있었는데, 참아도 참아도 잠이 오길래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구산방장스님께 편지를 올렸습니다. ‘혼자 도저히 수행이 안되니 제가 송광사에 가서 삼 년을 살테니 제가 사는 모습을 보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면 열심히 정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빨리 오라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수좌만 있었지, 삼년을 지켜봐달라고 하는 수좌가 없어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가 봅니다. 삼 년 결사를 했었는데 노장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나봐요.

구산 큰스님께서서는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저녁 열한 시쯤 되면 손수 삼을 푹 끓여 가지고 수선사 마루에다 갖다 놓고는 바닥을 푹, 푹, 치고 갑니다. 나는 그때까지 안자고 있다가 삼을 마시고 다시 참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도

빠지 않고 45일간을 계속 하셨어요. 만약 삼을 안먹고 그냥 자는 날이면 방장실로 불려서 다짜고짜 “石流不流水(돌은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는다)라, 이 말을 일러라” 하시곤 대답이 나오기 전에 주장자로 아무데나 패는데, 요령껏 피하지 않았으면 반병신 되는 거야! 어른이 끓여다 주는 걸 먹지 않고 잤다는 거지. 맞기 싫으면 대답을 하던지 부지런히 참선을 하던지....

또, 인월정사라고 조계산 상봉 밑에 있는데, 당신이 살겠다고 지어 놓고 나더러 올라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수스님, 도원스님하고 셋이서 올라가 겨울 한철 사는데 참 재미있게 살았어요. 겨울 석달 동안 땀 나무를 셋이 전부 밑에서 해놓고, 밀가루를 큰 보따리로 한 짐씩 짊어지고 올라가서 석달 먹을 빵을 해 놓았어요. 며칠간 그것을 얼음에 푹푹 얼려놓고 묵언정진을 하는데, 당번이 일주일 동안 군불을 때고 매일 빵 세 개씩 아홉 개를 찌서 각자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렇게 정진하고 있는데 노장님이 올라 오셔서 다짜고짜 두드려 패면서 ‘이렇게 까지 해서 얻은 소식을 일러라. 巖頭開眼(바위가 눈이 열렸다)이니라’ ‘열린 눈에 열렸다 안 열렸다하는 말씀은 그 허물을 어떡하실랍니까?’ 싸움이 붙었어. 두 스님들 보는 앞에서 한바탕 싸우고 내려가셨는데 입승 사는 휴암스님에게 ‘혜국수좌가 한쪽 눈은 열렸다’고 그랬답니다. 남국선원 짓기 전 아팠을 때도 손수 약도 지어오시고... 참으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앞선 스승님들이 걸어가신 모습, 그것이 살아 있는 경책입니다.
 도를 깨친 그분들이 우리 앞에 당당히 계시는데 무얼 망설이겠습니까.
 열심히 같이 정진해 봅시다.

하루는 치과를 가는데, 왜 가냐고 물어 보시기에 “어금니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하도 잠이 많아서 속이 상한 김에 나도 모르게 어금니를 물고 울다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뒷날 조용히 오라고 해서 갔더니 쇠금자에 어금니 아자로 금아(金牙)라는 호를 주셨습니다. 아자가 깃대라는 뜻도 있어서 황금 깃대라는 뜻이었습니다. 호를 주시며 “너는 내걸을 떠나서는 안된다.” 라고 하시데요. ”스님! 생각해 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한 철을 살고 난 다음 “스님 말씀대로 그 호를 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님께서 가장 기억나는 도반이 있다면 어떤 분이든 무슨 이유입니까?

도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있지만 봉화 축서사에 계시는 무여스님이 먼저 생각나요. 내가 그분을 워낙 좋아해. 도반이라기 보다는 그분을 존경해요. 무여스님은 선방에 한참 다닐 때 상당 부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무여스님같은 분이 정말 스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라고 생각해요. 우리 수좌계, 불교계에 계신 것이 참 다행입니다. 내가 훌륭한 도반스님 만나서 살게 된 것을 보면, 다른 복은 없어도 스승복하고 도반복은 참 많다고 생각해요. 도반복, 무시 못합니다. 도반

이 반은 공부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지금도 그분하고 만나면 밤을 꼬박 샐니다. 그 양반이 내일 모래면 환갑인데, 참 나한테는 도반이라기보다 나이도 한 일곱살 많고 참 존경하는 분인데, 도반스님이라고 하면 난 무여스님 이상된 분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지금도 내가 그런 스님을 도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중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생각만 해도 좋아.

무여스님하고 언제부터 그런 인연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된 동기는, 그 양반이 정진을 참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났었거든. 어디서 사는지 모르다가, 그 무여스님이 오대산 상원사로 간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상원사로 찾아 갔지요. 한 30년은 되어가네요. 거기서 만나 살아 보니까 정말 사는구나 싶습니다. 그 분도 내가 송광사 간다고 하니까 ‘난 지금까지 선방에 다녀봐도 스님처럼 사는 사람 못 봤소. 좀 같이 삼시다’ 해서 그래 이제 둘이 같이 송광사 내려와서 3년 결사를 같이 했죠. 대승사, 봉암사, 칠불사, 도성암 등 내내 같이 살았죠. 그러다가 마지막 헤어진 것이 망월사에서 같이 살다가 축서사로 들어가셨어요. 열심히 살다보면 그렇게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난 스승도 도반도 어찌면

자기가 만들어나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스님께서 들으셨던 화두는 무엇입니까?

‘板齒生毛’ 전강스님께 탄 화두인데, 화두를 받고 앉아 있으려니까 학교 다닐 때 짜장면 먹던 생각, 어머니 생각 등 온 생각이 다 나요. 무슨 생각이 그렇게 나던지 화두가 될 턱이 없죠. 그러다가 경봉스님 회상에 오니까 ‘무슨 화두하노?’ ‘판때기 이빨에 털 난겁니다. 왜 털났는고’ 합니다. ‘그건 판때기 이빨이 아니고 앞이빨이다.’ 하시거든. ‘경봉스님은 남쪽으로 대단한 도인이고 전강스님은 북쪽으로 대단한 도인이니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어느 노장이 틀렸나?’, 그러니, 화두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참 부끄러운 이야기야. 얼마나 내가 따지기를 좋아했던지. 서울 명동에 있는 화교학교 교장을 찾아가서 ‘板齒生毛’가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그 양반도 모른다는 거야. 한참 있다가 어느 노인네를 모셔왔는데, 노인이 하는 말이 “송곳니가 개이빨처럼 생겨서 견치라 부르고, 어금니는 음식을 씹는다고 식치라 부르고, 앞이빨이 판때기처럼 생겼다고 판치라 합니다.”

그럼 앞이빨에 털난 것이 맞는거라. 그 길로 전강스님에게 쫓아가

서 ‘스님 잘못 말하고 계십니다. 판 때기 이빨의 털이 아니라 앞이빨이랍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지팡이를 들고서 ‘이 놈이 공부 좀 하는 줄 알았더니’ 하시며 막 소리소릴 지르시더라고요.

내가 어렵게 알아내니까 고맙다는 말은 안하고 ‘때리기만 해서 ‘판치생모’를 안 해 버렸어.

그날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하는데 도대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내 마음대로 ‘뜯 앞 에 잣나무’로 화두를 바꿨지.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 지도 모르고 혜국 스님 공부 잘 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네. 이제는 스님들한테 물어 보지도 못하고 큰일 났다 싶지만. 그러던 중 성철스님인가, 구산스님께 갔던가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정도로 그냥 다시 ‘판치생모’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글자는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야. 어떻게 글자가 아무렇게나 나와도 되느냐, 그게 이해가 안가요. 도저히 안되서 구산스님께 가서 ‘스님 제가 화두를 바꾸겠습니다. 자꾸만 헛갈립니다.’ 하니까 아 그 분이 알고 그랬는지 ‘뜯 앞의 잣나무’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뜯 앞에 잣나무에 매달리다가 그 그릇 떨어지는 걸 보고는.....

화두라는 것은 말씀話자 머리頭 자거든요. 말머리란 뜻인데 말이란 뭘니까? 말은 우주 삼라만상 모양 있는 것을 모두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머리는 삼라만상이 생기기 이전의 진리거든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이나 동산스님이나 부처님께서서는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물으면 그냥 탁 보여줬거든요. 그냥 그대로 보여준 것이 화두예요. 그것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앞이빨이라고 해도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은 똑같고 판 때기 이빨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 속에 숨겨진 뜻만 알아내면 되기 때문에 글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화두는 뜯 앞의 잣 나무든, 간시곶이든, 마삼근이든, 판치생모든 정말 글자와 상관없이 내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안목만 탁 터져 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미닭이 부치고 계란이 우리 중생인데 온도가 따뜻해지려면 어미닭이 앞 의 털을 다 뽑고 병아리 체온과 하나가 될 때 탁 터지거든요. 부처와 하나가 될 때 말이죠. 그러면 내 몸뚱이는 계란이요, 화두는 어미닭 체온이니까 ‘어째서 어째서’ 하는 의단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꼭 차는 날 탁 터져요. 내 몸뚱이가 터져요. 그리고 나면 판치생모든, 앞이빨에 털난거든, 판 때기 이빨에 털난거든 글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됩니다. 제 화두는 그거였습니다.

선방 다니실 때 어록이나 경전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셨습니까?

그때는 경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뭐라 해도 선문촬요를 걸망 속에 몰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신심 안 나면 몰래 포행시간에 가지고 가서 막 읽으면서 좋을 때는 막 울고 안될 때는 막 소리

지르고 그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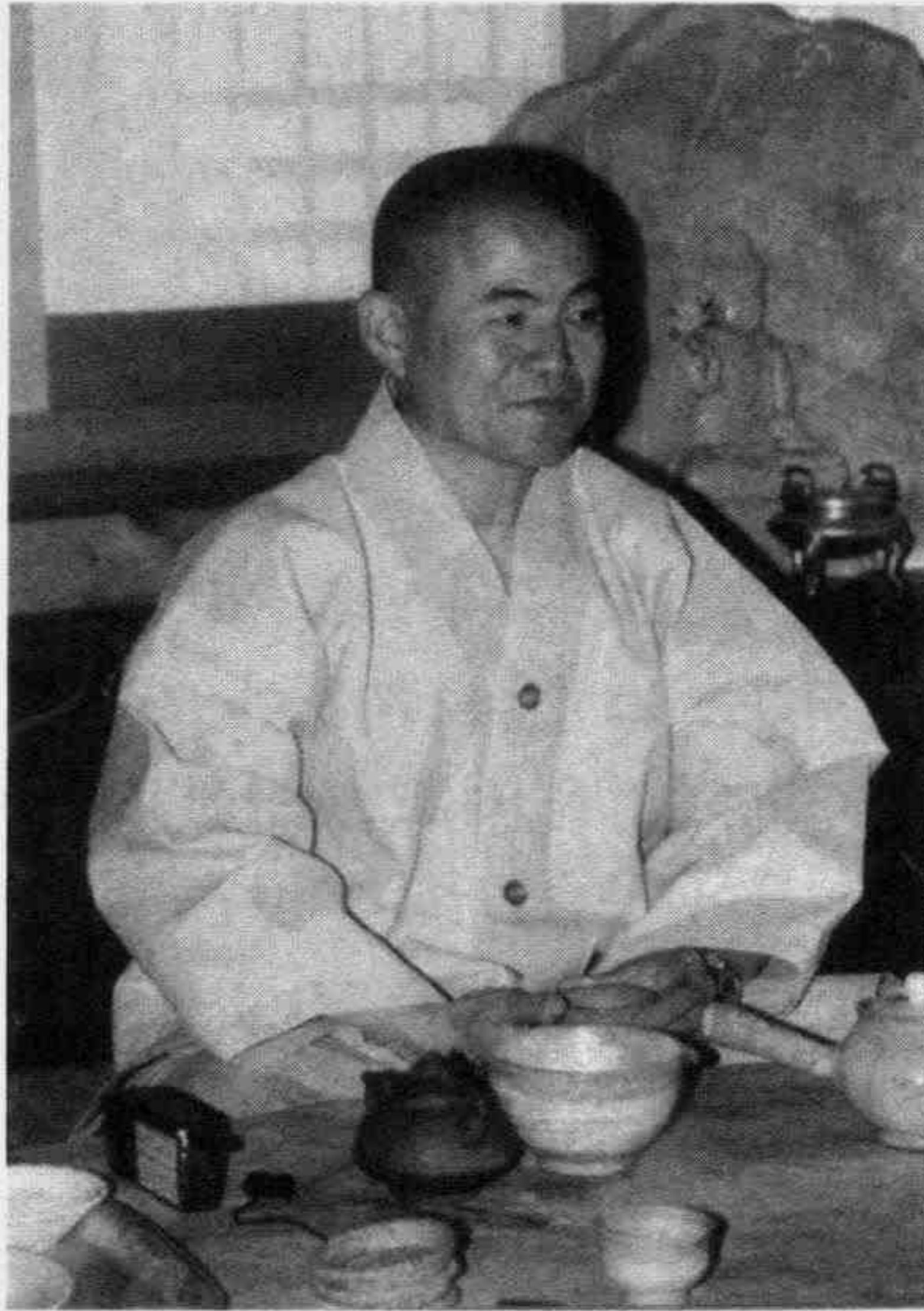
요즘 경전이나 어록같은 것 보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금강경이 좋아보이더니 요즘은 ‘제법실상’ 도리를 설한 법화경이 그렇게 좋아보이더라고요. 어떤 때 법화경을 읽다보면 아이럴 수 있구나 하고 찬탄이 납니다. 화엄경은 아직 내 신심에도 읽다보면 못 따라가요. 너무 장황해가지고 그 세계를 제가 다 못 미쳐요. 그렇게도 좋은거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내 회갑에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화엄, 법화, 열반을 지고 가서 한번 다 거둬 봤으면 할 정도로 찬탄합니다. 법화경은 그 분들이 신심이 워낙 나서 찬탄하다 보니 자랑만 너무 많은 것 같고 서론이 많은 것 같지만 본인이 그 위치에 서 보면 자기소리 같아서 좀 더 찬탄해야 되고 좀 더 자랑해야 되는데 싶은거라. 제가 도움받았던 어록은 ‘육조단경’이었습니다. 그전에 참선할 때는 ‘몽산법어’가 상당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몽산법어(蒙山法語)’ 가운데도 ‘시총상인(示聰上人)’이라는 법문은 제가 좌우 명으로 늘 써서 붙여놓고 공부했었습니다.

저희 송광사 강원에서는 치문반 때 자비관을, 사집반 때는 수식관을 합니다. 그 뒤로는 유나스님께 화두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비관 수식관이 화두드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냐하면, 요즘 병폐중에 하나가 자비관

한다 수식관 한다 하면 아주 무슨 의도인양 취급을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제거되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건강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식을 하고 국수를 먹고 찹쌀을 보충해 주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 몸도 한가지만 편식해서 좋은 것이 아니듯 화두에 대한 믿음이 몰록 서서 '아! 이거는 진짜 내 마음을 보여줬구나' 하고 믿어버리면 원 없이 좋겠지만, 때로는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비관이나 수식관도 할 수 있죠. 자비관이나 수식관이 절하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다른 종파에서 하는 것인양 그렇게 보면 안되죠. 백골관, 수식관, 자비관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을 안정하고, 가다듬고, 다스리는 과정일텐데 왜 그게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어요. 요즘 비파사나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워 온 한계까지만 해야 하는데 마치 화두선은 안되고 오로지 비파사나만이 전부다 하면 이건 외도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화두선도 마찬가지로. 비파사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나도 영어를 조금 하는데 내 영어실력 가지고 비파사나 강의하는걸 들어보니까 열 마디에서 한 마디쯤 들립니다. 대충 뚜드려 잡고서 다 배운 것처럼 와서 가르치는데, 인정을 받은건지 비파사나가 완전한 건지 의문입니다. 마치 완전한 것인 양 전해지고 우리나라에서 그걸로 깨



불법문중은 佛捨一法이라, 이것밖에 없다하면 벌써 집착입니다. 화두든 염불이든, 모두 우리를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의 표현방법만 다를 뿐, 말이 끊어진 무념무상의 상태를 지향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간화선은 인가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비파사나는 안된다고 하는 것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를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무념무상으로 가는 것이 꼭 있어서 참선하는 것만은 아니죠. 이것밖에 없다 하면 이건 벌써 집착입니다. 불법문중은 不捨一法이라. 사람이 전부 각각 다르니까 업도 전부 각각 다르고 삶도 다른데 각자에 맞는것부터 시작해야죠.

스님들께서 화두선만을 최고라고 지도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나도 마찬가지로요. 나도 그거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는 불교가 너무 편협해져서 안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말의 표현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말이 끊어진 무념무상의 상태를 화두라 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거치지 않고는 깨치지 못합니다. 수식관을 했던 자비관을 했던 결국 내 자신이 없어져 버리고 통허한 내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을 무념무상이라고 하지요. 그 무념무상을 찬탄하고 그것을 화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들이 되나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있어서 참선하는 것이 전부라고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선에서 말하는 것은 삼매에 들어가지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꼭 빠져 들어가야 결국 그놈이 독로(獨露)하게 나타나는데 그 상태를 우리

참선문중에서는 화두라고 합니다. 어느 길로 왔든 무념무상이 되지 않으면 못 깨치니까, 무념무상인 화두는 최상승선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학인들이 선원에 가기 전에 어떤 마음과 준비를 해야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강원을 졸업하지 못했지만 지금 경전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내가 이런 사상 속에서 살 수 있다니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경전들을 강원에서 한번 거둬보지 않으면 다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강원에서는 강원경전을 몰록 거둬봐야 됩니다. 강원다닐 때 경전을 충실하게 거둬본 사람은 선방에 와서 ‘어째서’ 하고 의단을 가지는데, 강원에서 선방가기 위해 할 수없이 졸업장 타려고 하는 것이면 선방에 딱 와 봐요. 앉았으면 ‘학교를 가, 포교하러 가? 이거 안되는 거구만’ 하고 망상만 듭니다. 강원에서 건성으로 한 사람은 선원에 와서도 100% 건성으로 합니다. 와서 보니 별거 아니네. 이게 도대체 되지 않네 이리갈까 저리 갈까 망상만 피웁니다.

나는 강원에 있는 스님들에게 옛날 조사스님들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현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인생은 연습게임이 없습니다. 어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지요. 나는 강원에서 현재 배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싶어요. 강사스님들 그거 가르치느라고 꼭 같은 말 해야 하는데... 참

강원다닐 때
경전을 몰록 봐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충실히 몰두하십시오..
그 몰두한 내용이 내 백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으로 속타겠어요. 난 그래서 선방스님들 보고 주지스님, 강사스님, 포교하는 스님들을 각듯이 모셔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강원에 있는 스님들이 무슨 만화책 보는 겁니까? 부처님 말씀이죠. 전혀 몰랐다가 한 구절만 준다면 춤을 출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거기에 충실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몰두하십시오. 몰두한 내용들이 내 백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제자분들에게 자주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상좌들 보고 第一戒가 살생하지 말라는 계가 아니라 스님의 길이 아니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걸 第一戒로 해야 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하루에 한번은 꼭 ‘내가 스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과거 전생에 무수히 원을 세워서 출가를 했는데 전생에 버리지 못하고 애쓰던 오욕락이나 망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않은가?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설은 것은 익게 하라. 우리가 맑은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아직 설었

고 망상이나 여자를 그리워하는 것은 꼭 익었기 때문에 익은 것일랑 더 이상 익어서 썩지 않게 하고 설은 것은 익혀서 맑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구한말 경허선사부터 근래에 성철스님까지 많은 선지식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즘들어서 일본과 비슷하게 선지식과 도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전통적 수행법이 사라져서 그런것인지 문명이 발달되어 우리가 너무 편리한 쪽으로 살아가서 그런 것인지 스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 무서운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집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인구 비례로 따지면 중국에 도인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도인이 엄청 많이 쏟아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서옹스님, 송담스님, 진제스님 등 쟁쟁한 스님들이 있다는 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옛 스님들이 화두를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믿고, 요즘 스님들처럼 분별이나 사회에서 배운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도대체 저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뜰앞의 잣나무야!’ 라고 말씀해 주면 무조건 믿었습니다. 무조건 몰두했습니다. 지금의 스님들은 행동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머리로써 하고 너무 성급합니다. 내가 몇 십년을 선방을 다녀봐도 ‘왜 이번철에는 안깨치지, 이번철에 한바탕 휘저어야 할텐데’ 욕심이 앞서가지고 잘 안되죠. 옛날 사람들은 한번 앉으면 40분은 화두를 잡았는데 요즘사람들은 5분도 안한다고 봐요. 안된다고 성

염불을 하든 수식관을 하든 경을 보든 화두를 하든 10년만 하세요. 10년만 놀지 않고 헛노력 하다보면 반드시 자기 스승이 나와요. 우리 눈에서 볼 때는 헛노력이지만 부처의 눈에서 볼 때는 하루하루가 자기 앞으로 딱딱 걸어오는 겁니다.

급히 하다 비파사나도 해보고 주력도 해보고 요즘사람들은 기계문명처럼 빨리 이루어지는 게 머리에 익숙해져서 빨리 익히려 하는 바람에 더욱 늦어집니다. 화두선이 잘못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출가해서 처음 공부할 때는 '부처님 한평생 안 깨쳐도 좋습니다. 내 원을 이루었는데도 뭘.' 마당을 쓸어도 부처님, 발원을 해도 중생들 위해서 발원하면 중노릇 자체가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시간나는 대로 '참 나는 무언고?' 하며 열심히 정진하면 절대 10년이 안 넘어갑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한철에 끝내려고 하다 반철만 지나면 '지리산으로 갈까? 태백산으로 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화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익어 버린 머리가 문제예요.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화선은 틀렸다고 비파사나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저희들에게 알맞는 수행방법은 무엇입니까?

염불을 하든 수식관을 하든 경을 보든 화두를 하든 10년만 하세요. 중생이 부처되는데 10년을 투자 안 하면 욕심이죠. 나고 죽는 문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길인데 어떻게 10년 투자도 안하는지 몰라요. 어떤 방법이라고

찾지 말고 나는 오늘부터 목탁잡고, 안되면 절하고, 안되면 화두하면서 10년만 놀지 말고 부지런히 헛노력 하다 보면 반드시 자기 스승이 나와요. 우리 눈에서 볼 때는 헛노력이지만 부처의 눈에서 볼 때는 하루하루가 자기 앞으로 딱딱 걸어오는 겁니다.

스님의 원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평범하게 보면 원력이지만 나한테는 마음아픈 이야기죠. 수행자는 평생 수행하는 길로만 가주었으면 하는데, 나는 불사나 범문하는데 아주 업이 많거든요. 그것은 익은 것이거든요. 이젠 말 안하고 부끄럼없이 감자 심어 먹고 산짐승 몰려 오면 먹이 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처님 생각, 화두 생각으로 머리 속까지 꽂아서 나는 없어지고 화두만 독로하게 살아봤으면 하는 게 원력인데, 이게 도둑놈같은 원력이지요. 보통 큰 원력이 아니죠. 佛事나 범문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다 했다고 보죠. 다시 내 수행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게 내 원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후학들에게 경책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경책해줄 말은 없어. 스승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어른들은 가버

리고 가면 다시는 못볼 분들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얼마든지 같이 정진할 수 있으니까. 그전 어른들이 살아가신 모습과 서용 큰스님, 송담 큰스님, 진제 큰스님들이 다 증거로 보여 주는데 그보다 더한 경책이 어디있겠어요. 그냥 우리들 눈앞에서 송담큰스님께서서는 전강조실스님께 당당히 인가를 받았지요. 너는 마음을 깨쳤다고. 그것이 살아있는 경책이지요. '아이구, 야 이거 틀림없는 길이구나. 우리도 하면 된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특별난 거 별거 없어요. 도를 깨친 그분들이 우리앞에 당당히 계시는데 무얼 망설이겠습니까. 열심히 같이 정진해 봅시다.

다실 창사이로 계속 비가 내리고 한라산은 보이지 않았다. 너무 쉽게 한라산을 보려고 한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어느새 지나간 2시간. 스님의 살아있는 범문은 듣는 이의 환희심을 불러 일으키게 했다. 금방이라도 무엇인가 잡힐 것만 같은 느낌. 그러나, 그 느낌 그대로 말씀을 글로 옮기기엔 너무도 역부족인 듯하다. 하고자 하신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행어나 스님께 누(累)가 되지는 않을는지...

잡 초

부처님께서 순타의 공양을 마치시니 순타가 여쭙었다.

“천상에서나 인간에서 가장 존엄하신 분이시여,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사문이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종류의 사문이 있나니, 도를 닦음이 아주 뛰어난 사문, 도를 알고 잘 설명하는 사문, 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문, 그리고 도를 위한다면서 악행을 하는 사문이니라. 사람들은 대개 나의 제자들은 모두 지혜가 있고 청정하고 결백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실은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들을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느니라. 착하지 않은 사람이 착한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있나니, 곡식 속에 잡초가 있어 곡식의 열매를 해치는 것과 같다.

또한 한 집안에 나쁜 자식이 있으면 온 집안을 망치는 것처럼 나쁜 비구가 한 사람 있으면 나머지 여러 비구들을 욕되게 한다.

겉모습이 그럴 듯하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뜻이 청정해야 좋은 사람이니 공연히 겉모습만을 꾸미지 말고, 또한 겉모습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 하지도 말라.

만약 부처를 믿고 법을 따르며 출가자를 공양하면 죽어서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느니라.

경을 밝게 아는 사람은 음심(淫心)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며 사견을 따르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려야 할 것이니, 나쁜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을 다 나쁘다고 하거나 책망해서는 안되느니라.”

불반니항경 권상 <1-167하>

발보리심

응진(應眞) / 대교

고통에 관하여(아 고달픈 세상)

세상은 늘 아무일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난 괴로웠다.

학교라는 곳은 친구들과 술마실 약속이 있거나 하면 나가는 좁은 술집이었고 주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기숙사도 언제든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일 뿐이었다.

당시 내 주변에는 고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류의 인간이라고 규정지어도 좋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다들 그러저럭 살다가 때가 되면 남들처럼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사회에 적응하여 사는 일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어쩌면 이미 안정된 사회구조는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그러저럭 살기에는 묘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라고 부정해보지만 세상은 지금 나의 모습으로 일찌감치 나의 그릇을 규정해 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어린 나이에 누구든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한번쯤 심각한 사색을 진행시켰던 적도 있었을 것이다.

뭐라고 집어낼 수 없는 이러한 삶의 불안은 사실 무상에 대한 두려움에 지나지 않았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죽음은 일종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변화한다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는 것이다.

초기경전인 아함경에서는 일체 법에 대한 속성을 모두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라고 단정을 한다.

이러한 무상·고·무아는 지속적으로 정념수행을 하게 되면, 한 찰나 이전과 한찰나 이후의 사이에서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체험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체험 이전의 삶의 무상성은 그저 고통일 뿐이다.

가끔은 그림기도 한 그 시절.

그때 내게 세상은 고달프기만 한 세상이었다.

누가 그러던데(믿음에 관하여)

‘믿는다’는 믿음 사람과 말씀이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회의문자로, ‘사람의 말은 심중에서 우러나오는 거짓없는 것’이라는 데서 믿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예불을 드리고 공양하며 함께 수행하는 까닭도 우리들의 스승인 석가모니부처님에서 숭한 조사 선사까지 그 말씀에 따라 수행하면 반드시 고통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그들을 신뢰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다시 살아나 내게 그들이 진정 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한다하더라도 믿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어찌 죽은 시체에 불과한 언어문자만으로 가능하겠는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였다고

선언한 위대한 영웅 고오타마 싯타르타도 사실 죽었고, 그를 뒤따른 술한 조사 선사도 생사가 둘이 아닌 이치를 몸소 보이하고자하여 앉아서 가고, 서서 가고, 혹은 물구나무 서서 갔다고는 하더라도 결국은 죽고 없어지지 않았는가 말이다.

다소 황당하긴 했지만, 고오타마 싯달타 이후로 그렇게 많은 위대한 조사 선사들이 모두 세상사람들을 속인 사기꾼은 아닐 것이라는 것과, 그들이 얘기하는 공부라는 것을 하다보면 내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리라는 내 오류의 가능성을 가정하고 남은 그것만이, 사실 내게 있어서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믿음이었다.

사실 저 불신의 끝에서 흔적으로 남았던 그것이 나의 출가를 결정했던 믿음의 전부였다.

믿고 따라가기(교법에 대한 이해)

미약한 신심이라도 모든 출가는 고귀한 것이다.

생로병사의 고해에서 부여잡은 실낱 같은 희망이었던 불법.

술한 세월을 헤매이고 헤매이다 만난 소중한 인연으로 대강이나마 파악한 내용은, 팔만사천법문이라고 말하는 광대한 불법도 三界一心 萬法唯識의 부연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계일심 만법유식은 유식학의 대전제일 뿐만 아니라 팔만사천법문을 포괄하는 핵심이다.

삼계일심이라는 것은 우주만유

가 전부 우리 일심의 모습으로, 적게는 티끌에서 크게는 삼천대천세계에 이르기까지, 전부 내마음밖에 나와 무관한 세계가 아닌 진여일심으로서의 삼계라는 것이다.

화엄종 초조인 두순지엄스님은 일심의 세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懷州牛喫草 益州馬腹脹

天下覓醫人 灸豬左膊上

회주에서 소가 풀을 뜯어먹으니

익주에서 말이 배가 터졌다

천하에서 의원을 찾아

돼지 왼쪽 허벅지에 뜬을 떠라.

상식적인 견지에서 이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회주땅에 있는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공간적으로 수천 리나 떨어진 익주땅에 있는 말의 배가 터졌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더군다나 터진 말 배를 고치는데 어떻게 돼지 왼쪽 허벅다리에 뜬을 뜬단 말인가!

이 시를 이해하는 요체는 바로 일심, 즉 이 세계를 연기실상인, 하나인 생명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해동화엄의 초조인 의상스님은 법성계에서

‘세간법이든 출세간법이든 모든 우주만법과 만법의 근원으로서 성품인 일심은 본래 원만하게 융합해서 상대적인 두 모습이 아니며(法性圓融無二相),

대지는 춘하추동 사계절이 끊임 없이 변하고 인간에게는 생사가 간

단없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생의 망상식에 불과하고, 이 제법은 새삼 깨달아서 고요한 것이 아니고 본래 요동한 일이 없으며 그대로 열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諸法不動本來寂)

그런데 본래 너와 나 이것과 저것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는 하나의 생명체인 일심에서 어떻게 천차만별의 현상세계의 모습이 벌어졌는가?

본래 일심인 이치를 미혹해서 분별심인 식으로 차별의 현상세계가 벌어졌다는 표현이 바로 만법유식인 것이다.

橫看成嶺側成峯 遠近看山了不同
不識廬山眞面目 只爲身在此山中

이리 보면 고개 저리 보면 봉우리
멀리서 가까이서 산을 보니 끝내 동일하지 않구나.

여산의 진면목을 모르는 것은
내 몸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네.

소동파는 분별하는 마음인 식에 의해 벌어지는 차별경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여산의 진면목으로서의 우리 일심은 본래 한번도 변한 일이 없지만 단지 분별하는 망상심으로 인하여 봉우리로도 고개로도 보인다는 것이다.

이 우주가 하나의 생명체로 본래 평등한 모습이라면 내가 설사 분별한다해도 본래 평등한 삼계일심의 일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중생이 다르다고 망상으로 착각

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슬픔, 그리고 위대한 서원

한번도 죽어보지 못한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듯이, 나와 같이 내 주변의 사람들도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 결국엔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이러한 생사의 고통이 그저 당대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저 한번 견뎌볼 만한 것이라 하겠지만 무시 이래 고통을 당해왔고 미래세가 다 하도록 겪어야 할 고통이라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답답한 가슴 풀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전에서는 “한 사람의 중생이 무시 이래로 윤회에서 생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사용한 시체를 쌓아 올린다면 수미산보다 높고, 흘러내린 눈물을 모은다면 사해의 물보다 많다”라고 비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에겐들 부처가 중생의 고통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는 대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중생이 불쌍한 존재라면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는 대서원을 세워야 한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은 사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의 긍정적인 표현이며, 발보리심의 다른 표현이다.

중생수 만큼이나 다양한 서원들은 네 가지의 위대한 서원인 사홍

서원에 포함되기에, 일반적으로 서원이라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사홍서원을 말한다.

衆生無邊誓願渡

중생이 끝없이 많아도 반드시 제도하겠습니다.

煩惱無盡誓願斷

번뇌가 다함이 없어도 반드시 끊겠습니다.

法門無量誓願學

법문이 한량이 없어도 반드시 다 배우겠습니다.

佛道無上誓願成

불도가 위없어도 반드시 성취하겠습니다.

절집안에서 행하는 모든 범회의 처음이 삼귀의례 믿음의 문에서 시작하여 사홍서원의 위대한 원으로 끝맺음으로 하는 소이는,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을 증장하여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려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믿음의 증장과 사홍서원의 성취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여라(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그 요체인 위대한 서원의 실현은 끊임없는 육바라밀의 실천수행만이 가능하게 한다.

대승불교의 개론서라고 말해지는 마명보살의 기신론에서는 “이와 같은 대서원을 일으켰기 때문

에, 일체의 시간과 일체의 처소에 있는 많은 선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따라서 버리지 않고 수학하면서 마음에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라 했고, 보리수 밑에서 향마성도한 이래 39년을 쉬지않고 전법하셨던 부처님께서도 사라쌍수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 비구들아, 지금 나는 너희들을 불러 말한다. 결합된 것들은 흩어지는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여라. 이것이 여래의 마지막 말씀이다.”고 하셨다.

늘 들어도 여전히 가슴에 사무치는 부처님의 육성이다.

강당의 4년을 많은 사람이 기억하기를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기라고들 말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

강당의 마지막 하안거가 저무는 지금에서야 오직 정진만이 유일한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의 해결책임을 절감한다.

□ ‘믿고 따라하기’ 부분은 중앙승가대 송찬우교수님의 강의내용을 편집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물을 바라보며

진관(眞觀) / 사집

송광사가 있는 산을 조계(曹溪)라 이름함은 6조 혜능대사의 후손들이 많이 나온 까닭도 있거니와, 절 주위를 돌아가는 계곡의 아름다움 또한 일조(一助)함은 송광사를 다녀간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일주문을 들어서 우화각(羽化閣)을 바라보노라면 소동파가 우화등선을 노래한 적벽의 웅장함과 한(恨) 서림은 없어도, 잠시 분별을 잊을 만한 자연스러움이 배어 나온다.

대자연 앞에서 한낱 사랑분별하는 자신을 비추어 보고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더구나 ‘入此門來莫存知解(이 문에 들어 올 때는 모든 알음알이는 가지지 말아라)’의 일주문을 들어서서 물에 비치는 자신을 보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우화각이 아니더라도 송광사 주변에는 탁족(濯足)하기 좋은 곳이 많고 나지막한 산이라, 모든 계곡은 사유의 공간이 된다.

欲識魚之樂 終朝俯石灘
吾閒人盡羨 猶不及魚閒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고자
아침 내내 돌여울을 바라보았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한가롭다
부러워 하지만
그래도 물고기의 즐거움만은 못하리

<鄭澈의 水檻觀魚>

참 재미있는 시이다.

물고기가 즐거우냐 즐겁지 않으냐는 논쟁에서 벗어나 자연을 자주 찾는 요즘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재

미를 주는 글인 것 같다.

나 또한 자주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보려 한 적도 많았다. 언젠가는 흐르는 물을 보며, 이 백의 장진주에서 ‘君不見 黃河之水 天上來 奔流到海不復回 그대 보지 못했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황하의 물이 바다로 쏟아져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함’과 황진이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 마라’는 말이 걸려 웃던 적이 있다.

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고 또다시 구름이 되어 돌고 돌건만 그 물이 윤회를 벗어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물 자체가 윤회를 벗어나고 싶지 않다면? 등 이런 저런 희론을 전개하면서 비유의 즐거움이 반감할 때가 있기도 했다.

사실 물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모든 것을 비추어 낼 수 있는 끊임없는 맑음의 추구하고, 어느 인연을 만나더라도 스스로의 형태를 바꾸어 그 모습에 맞추는 무상함과 무아의 교훈인 것 같다.

무상함과 무아의 교훈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만 장자(長子)의 虛舟駕浪(빈배처럼 물결을 따라 흘러가면 시비분별에서 벗어남)의 예로서 물의 특성에 조금 빗대어 본다.

또한 무엇인가를 비추어 내는 물의 모습에는 나에게 재미있는 추억이 있다.

3년 전인가 단오 때 노스님께서

부채를 주셨는데 거기에 ‘水急不流月’이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다. 그 글귀를 가지고 사숙님과 사제들이 같이 이야기하는데 한 쪽은 ‘물이 아무리 급하게 흘러도 달그림자는 허상이기에 흘러보낼 수 없다’는 학문적인 해석과 ‘물이 급하게 흐르면 달이 떠 노닐 수 없다’고 여름부채에 어울리는 글귀라는 해석이 있어 설왕설래 했는데 결국은



노스님께 여쭙어보고 이야기를 끝냈다. 지금쯤 다시 만나 다시 풀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물은 주로 배경이 된다. 깊고 넓을수록 더 많은 침묵을 담고 있기에 많은 그림이나 시에 배경이 되어 인간의 사유개념을 넘어선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동양화 여백의 아름다움처럼 텅빈 듯 맑은 그곳에 자신을 비추어 관조할 수 있는 무한함. 가까이 있어 친근함으로만 다가오는 물의 가르침이 새삼 크게

느껴진다.

그럼 우리 출가자가 수행중 때때로 물가를 찾음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 자신을 비추어 보고자 함일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마음의 주재자라고 일컫는 ‘나’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비추어 보고자 함이다. 비록 걸모습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외양을 통해 그 안에 담긴 나를 엿보고자 함이다. 물에 비친 또다른 나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싶은 것이다.

이제 물은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그치고 그저 바라보라 한다.

池邊獨自坐 池低偶逢僧
嘿嘿笑相視 知君語不應

연못가에 홀로 앉아서
물 아래 있는 승을 우연히 보았네
묵묵히 웃으며 서로 바라보나니
그대 말 걸어도 대답하지 않을 걸
나는 안다네..

<眞覺國사, 그림자를 마주하고(對影)>

과연 물 위에서 물 속을 바라보는 나를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 속에서 물 밖의 승(僧)을 바라보며 미소짓는 그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까? 말하지 못하는 둘의 마음을 이젠 조금 알겠다면, 후훗. 지금까지 이야기가 공염불이 되겠지...

내가 지금 사는 것

중현(中玄) / 치문

새벽시간의 여유

오래 잠이 깨고 나서야 죽비 소리에 잠이 깨었음을 뒤늦게 알곤 한다. 다음부터는 미리 잠이 깨어 죽비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행사시절 때도 마찬가지이고, 큰방 생활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잠이 깨자마자 부산스럽게 서둘러야 하는 것이 항상 못내 아쉽다. 여유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행자 시절에는 오로지 몸과 마음을 절집 생활에 적응시키느라 정신이 없었다. 요즘 들어 여유를 찾는 것을 보니 스스로 어느 정도 적응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잠이 깨자마자 바빠 서두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닌데 괜시리 서두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여유가 있다고 하여 느릿느릿할 필요는 없지만 말이다.

어쨌든 대웅전에 도착하여 절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저런 느낌들이 잠에서 덜 깬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예를 들면, 끝도 없이 반복될 것 같은 이 피곤한 새벽을 마주해야 하는 아득함, 또는 언제나 조금도 틀리지 않은 판에 박은 생활, 어제와 꼭 같은 오늘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주는 그 막막함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다. 이런 것들은 피동적으로 이 끌려 다니듯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오래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도 없이 슬그머니 머리를 들추기 마련이다. 그래서 더더욱 자리에 누워

내일은 죽비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손이 가지 않은 책 위의 뽀얀 먼지처럼 현재의 자신 위에 쌓인 과거의 나 자신을 털어 버리려는 지금의 나에게 새벽 시간의 여유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그러나 요즘 두려운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새벽을 맞이한다는 사실이다. 어찌면 커다란 벽을 앞에 마주한 듯한 이 막막함, 절망감은 그 벽을 깨려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마치 겁많은 자의 용기처럼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듯이 말이다. 아무런 느낌도 없다는 것은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상에 매몰되면 그 일상이 아무리 다채롭더라도 삶의 활력이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일상이라는 말은 곧 삶의 다른 표현이다. 파블로프의 개는 종만 치면 먹이를 주지 않아도 침을 흘린다고 한다. 일상에의 매몰은 스스로를 실험실의 개로 전략시키는 행위이다.

내 마음의 감옥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날 하루가 엉망이 되는 법이다. 끌려 다니듯 일어나 대웅전에 도착하게 되면, 절하면서, 입정에 들어서, 심지어는 금강경 독경하면서도 온갖 망상에 빠지곤 한다. 얼마 전 새벽 예불시간에 절을 하다가 매일 같이 우리와 같은 시간에 나와 절하는 몇몇 보살을 보고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른 새벽에 매일같이 예불에 참석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나는 당연히 참석해야 할 자리에 참석한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다. 절집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주로 대중생활의 질서나 계율 혹은 威儀에 관련된 것들이 그런 것이다. 생활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시되어 왜 그러해야 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 가끔 구속이나 속박으로 느끼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인 감옥에 사는 형국이다. 큰 절의 행자생활은 군대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또 가끔 행자 생활을 감옥살이에 비유하기도 한다. 누가 가두어 놓은 것도 아닌데, 자기 발로 들어와 놓고서 생활이 힘들 때면 별 생각 없이 푸념하듯 그렇게 말하곤 하는 것이다.

생활을 관조하지 않는 자에게 일상도 감옥이다. 마음은 감옥과도 같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그 언젠가 거기'를 향하게 된다. 행자시절의 주된 공상 중의 하나는 강원에서 맞이하는 첫 방학이었다. 그러나 첫 방학도 현실에 흡수되어 버리면 그냥 그렇고 그런 '지금 여기'에 불과할 뿐이다. 첫 방학을 보내고 난 지금, 이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내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아야 '지금 여기'가 '그

언젠가 거기'를 향한 허망한 공상을 만드는 창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눈과 마음이 항상 '그 언젠가 거기'에 있는 한, '지금 여기'의 나는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할 것이다.

실제 감옥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레 적응되어, 오히려 감옥 바깥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한 여름의 뭉게구름같이 쉽사리 변하는 마음은 이렇듯 '지금 여기'를 감옥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바로 그 마음은 자기가 잠깐 동안 한 그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고정시켜 버리려 한다. 그러니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날뛰는 이 마음을 믿어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차분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절집 생활은 바깥 생활에 비해 훨씬 단조롭고 또 반복적이어서 마음 외부에서의 자극이 적은 편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행로가 밖에 있을 때 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하사당의 오후

따뜻한 봄별이 내리쬐는 오후, 어찌다 하사당을 지키게 되었다. 바람이 한 번 불자 신록으로 단장한 온 산이 춤을 춘다. 대웅전 앞 관광객들의 떠드는 소리가 웅성웅성 담을 넘어 들어오고, 그 소리를 뚫고 관음전 스님의 염불 소리가 끊일 듯 말 듯 이어진다. 책을 읽다가 졸리면 마당에 나가 잡초를 뽑는다. 그러다가 지루하면 천천히 아주 천

천히 마당을 걷는다.

원발, 오른발, 구름 한번 보고서 원발, 하얀 고무신 코를 한 번 보고 오른발...

정원을 말없이 지키고 있는 이들을 하나 하나 들여다 보며 마음 속으로 그 이름을 불러 본다. 모란, 작약, 동백, 벚꽃, 더덕, 장미, 옥잠화, 담쟁이 넝쿨, 그리고 내가 아직 그 이름을 모르는 낮선 풀들.

정신없이 돌아가는 치문반 생활에 어찌다 생기는 이런 한가로움은 스스로를 챙기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다. 아직 일상 속에서 자신을 관찰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풋내기 사미에게 이런 시간은 더없이 소중한 법이다.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중이 되어 가고 있다.



말이 많으면 실속이 없다. 더불어 그 사람의 무게가 없어 보이고, 승가의 말로는 위리가 안 선다. 지대방이나 편한 장소에서 이것저것 잡담을 나누는 모습이 스님에게는 왠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출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런 모양을 지금은 담담한 모양새로 앉아 있거나 포행하는 것이 더 좋게 보일 때가 많다. 그러나 굳은 얼굴과 딱딱한 모습의 묵언이라면 오히려 밝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결국은 자연스러운 모습의 묵언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이다.

3년 묵언이면 수행의 깊이가 현저하게 깊어진다고 한다. 그만큼 말없이 산다는 것이 힘들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묵언을 찬미하는 나는 솔직히 쓸데없는 말을 한 적이 많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묵언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무엇인가 있는 사람처럼 느끼고, 왠지 그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진다. 상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대하기가 쉽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출가하기 전 한때의 인생반향으로 군에서 1년간을 침묵으로 생활한 적이 있었다. 그때의 어두웠던 얼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 주위의 도반들이 간혹 눈매가 매섭다거나 얼굴이 날카롭다고 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일부러 웃음 띤 얼굴과 분위기를 바꾸려는 말을 던져 보기도 한다.

요즈음에는 강원생활에 익숙해

말의 여백

법공(法空) / 치문

지고 서로간에 격이 없어지다 보니 쓸데없이 지껄이는 잡담이 늘었다. 마음 속에서는 무게중심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분위기에 빠져 잡담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짧은 강원생활이지만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강원생활은 하심과 묵언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많은 대중이 살기 때문에 제각기인 성격이 어우러져 부딪치고 자신의 주장이 일어서곤 한다. 하심이 없으면 제각기의 모난 성격이 돌출되어 강원생활이 힘들게 된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내뱉은 그 순간 분별심과 아상이 생기기에 참고 말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화가 나기 때문이다. 묵언과 하심은 같이 따라 다니게 되는 것 같다. 조용히 주위를 관조하고 자신을 관하면서 아상과 분별심을 던져버리고 사는 것이 해탈의 큰 바다에 나아가려는 수행자의 자세로서 옳지 않은가 싶다.

문득 행자시절 나의 도반이 겪은 묵언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도반은 예비군교육을 불참한 관계로 출퇴근 4박5일을 받게 되었다. 둘째 날 행자실에서 교육 이야기를 해 주는데 한 처사님이 자신에게 와서 “스님 몇 가지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라더라. 그런데 그 당시 총무원 분위기가 안 좋았던 때라, 대강 짐작컨대 좋은 질문이 아닐 것 같고, 또한 자신의 배움이 깊지 않았던지라 말해서 득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손바닥에다 묵언 수행중이라고 썼다고 한다. 그러자 한동안 이해를 못하던 처사님이 알겠다는 표정으로 합장하며 제위치로 가더라. 그리고 교육이 끝날 무렵, 내일 점심 공양을 드리고자 하오니 도시락을 싸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도시락이지만 부모님의 손맛과 처사님의 신심이 가득하여 죄송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다는 도반이 이야기를 듣고, 내심 도반스님의 재치에 감탄하면서도 말을 많이 하고 자기를 들어내기 좋아하는 요즘에 묵언 수행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말은 의사 소통에 필요하다. 그러나 말하여 이해시키기보다는 실천행으로서 보여줌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묵언은 말의 여백이다.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채우고 나머지를 여백으로 둘 때 묵언의 아름다움은 자신을 참다운 수행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생과 사, 그리고 출가

보월(寶月) / 치문

98년도 3월초, 저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명은 '유상피육종', 피부암의 일종으로 근육을 괴사시키는 무서운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오십만 명당 한 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세상사람이 아니구나. 내 나이가 이제 33살인데...' 내가 마주했던 모든 순간의 기억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나는 떠나야 했습니다. '나는 왜 이래야만 하는가' 나와 의 싸움이 매일같이 계속되었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술을 밤새 마시면서 위안을 삼아도 보았지만 자고 나면 죽어야 하는 현실의 두려움은 더욱 또렷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숨쉬는 이 공기가 아름다웠고, 내가 맡는 향기들이 아름다웠고, 내가 먹는 음식이 간절히 소중했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름다웠고, 나의 가족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쓰던 컵을 보고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 아주 조그만 물건도 내가 만져보지 못하고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은

왜 그리 아름답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이제 어느 것 하나도 마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있는 그대로 모두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날짜가 잡혀지고, 두려움으로 보낸 낮선 병실의 밤낮들. 그리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살 속 근육을 잘라내고 살이 부족할 때는 다른 근육질을 절개해서 이식수술을 해야 하는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전신마취가 시작되고 감각이 없어지면서 나의 몸과 암 덩어리를 의사에게 맡기면서 나는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깨어날 때 저는 내 생애 다시 없을 추위로 떨어야 했습니다. 그 추위는 수술대에 올라 '아 이제 끝이구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느껴지는 잠재의식이 포함된 추위였습니다. 내 곁을 지키던 형님은 눈물을 닦으며 내 손을 꼭 잡고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나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아 살았구나 살았어' 하면서 또 추위를 느끼며 잠 속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다음날 저녁에 깨어났고 그 통증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자국이 아물 때쯤 또다시 죽음의 순간들과 매번 마주해야 하는 기나긴 투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오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부모 형제들의 '잘 될 거야.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위로를 들으며 상처만 아물기를 기다렸습니다. 붕대를 잘라내고, 실밥을 뽑고, 내 몸 속에 끊임없이 주사액이 돌아다니면서 기나긴 항암치료가 시작되었고, 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더 큰 고통과 두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사바늘이 살갓을 뚫고 항암제가 들어오고, 얼마정도 지났을 때부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만 뜨면 토하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의 뼈가 바닥에 흐트러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음식은 냄새조차 맡지 못하고 맡으면 다시 또 토하고, 콧구멍은 다 혈어 코피가 나고 그렇게 일주일 항암치료 후 나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 '어떻게 이런 고통을 한번이 아닌 다섯 번을 받아야 하는가'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10일 동안 치료를 받고 체중을 늘리고 기력이 회복되어 다시 2차 항암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2차 항암치료가 시작되고 또 똑같은 고통이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1차보다 고통이 상상외로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이 치료가 끝나면 어느 절에 가서 요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자 치료하는 동안 온통 절 찾을 생각만 했습니다.

2차 치료가 끝나고 속리산 상고암이라는 아주 조그만 암자를 찾았습니다. 2차 치료후 3일인가 4일째 되는 날 나는 등산가방을 메고 가족들이 말리는 가운데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내 이 추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싫어서 나는 그렇게 산으로 산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월 저녁 속리산은 추웠습니다. 그 절이 어떤 곳에 자리하는지 주지스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가방 메고 이정표를 따라 절에 도착하니 스님은 없고 공양주 보살이 주지 스님 방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법당을 휘감는 하얀 연기를 보며 '아 왜 이렇게 편안한가!' 웃음이 저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음식냄새조차 맡지 못했는데 이 절에서 먹는 저녁공양은 웬일인지 거부반응이 없어서 밥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참 이상하다. 아기들 밥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저녁에 스님과 마주하면서 '요양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할 때 흔쾌히 받아주시던 그 분이 뒤에 내가 출가하는 인연을 지어주신 은사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어떤 스님의 책 읽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몰래 스님 뒤로 돌아가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면서 감동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그 스님에게 다가가서 그 책을 볼 수 있느냐고 하니 책을 주시면서 얼마든지 필요한 책은 갖다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이 출가의 계기가 된 '중각보왕염

불삼매직지'입니다.

이제 다시 3차 투병이 시작될 때 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여 온몸의 털은 모두 남김없이 빠졌습니다. 세수하거나 머리감으면서 항상 그렇게 조심스러웠고,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자'. 고통이 다가올 때나 깨어있을 때나 '중각보왕염불삼매직지'와 '법화경'을 읽기 시작했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항암제가 몸 속에 흐르는데 1차, 2차 때의 고통은 사라지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계속 일어나 쉴 새 없이 토하는 것이 멈춰지고 고통도 사라져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이 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많아진다는데...'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다른 환자들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치료 도중 머리 속에서 아미타불이 떠나지 않던 기억. 법화경을 읽을 때 눈물이 나던 일들. '그 경전의 힘이었는가'하는 생각에 이르자 틈만 나면 경전을 읽었습니다.

치료가 다 되어갈 무렵 스님으로부터의 출가 권유를 받고는 오래지 않아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주지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책 읽던 스님이 만사형이 되어 나의 행자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속리산 자락 해발 960m고지에 위치한 상고암은 겨울이면 나무를 해서 방에 불을 지피야 했고, 약사여래전의 바닥 대리

석을 등짐으로 저 올리던 일이며, 시멘트 20포를 저 올리던 일들. 가파른 산길을 등짐지고 오를 때, 한 걸음 내딛고 '지장보살' 또 한 걸음 내딛고 '지장보살' 하면서 오로지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을 염하던 일들은 아마도 평생 수행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생명 건져주시고 불법에 이 마음이 머물 수 있게 하신 불보살님의 은혜로움을 생각하며 씩없는 정진으로 나의 출가는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 송광사에서 매일 예불드리고 간경하는 시간들이 새롭기만 합니다. 내가 출가하지 않았다면, 부처님 법이 아니었다면 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법을 믿고 따르고 행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할 것이며, 세세생생 부처님의 법이 머무는 곳에 태어나, 어려서 출가하여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고 행해서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할 것을 발원합니다.

이 몸이 완쾌하도록 도와준 외과 과장님과 간호사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전화 한 통 없는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님에게, 그리고 내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용기를 주신 친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잊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수행정진하겠습니다.

나무는 푸르고 햇살은 뜨겁다. 어느덧 강원에 입방한 지 두 달이 넘어간다. 계절은 이제 완연한 여름으로 바뀌어져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내의에 땀이 배이곤 한다. 항상 그렇지만 지나간 시간은 무척 빠르게 느껴지고 앞으로 지낼 시간들은 막막하게만 느껴진다. 옛날에 어느 책에선가 본 문구가 기억난다. '사랑이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 비단 사랑뿐만이 아닐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길들여지는 것 같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 새로운 것을 배워간다.(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를 배워 익숙해지면 또 다른 것을 배워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을 한다. 출가를 하겠다고 송광사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새롭고 낯선 것에 길들여지기 시작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아침공양하고, 운력하는 등등의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일상들이다. 스님들이 흔히 말하는 중물 들인다는 것이 이렇게 절집의 일상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진다는 뜻이라. 강당은 생각컨대 이 목적을 위해 있는 듯하다.

행자생활을 마치고 강당에 입방할 때의 긴장감도 잠시,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에 정신이 없었다. 큰방 지전이란 소임도 맡고, 치문이며 수심결 등 강의 받고, 간경하고, 참회하고, 습의 받고,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내 말이며 행동, 습관들이 강원 학인에 맞게끔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직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배워야 한다. 이제 겨우 두 달이 지났고 앞으로는 4년이 남았다. 두 달은 빨리 지나갔지만 4년은 막막하다.

나의 강당생활

마천(摩天) / 치문

부처님 공부는 세속에서의 지식적 교육과는 사뭇 다르다. 알아도 안 것이 아니고, 몰라도 모른 것이 아니니 헛갈리기만 하다. 길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강당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이 일일

것이다. 당장에 선방에 가서 이것저것 잡다하게 신경 쓰지 않고 단칼에 사생결단을 내고 싶기도 하지만 가만히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면 그것이 모두 아만이요, 아집이니 지금 햇병아리 사미중으로 해야 할 바른 일은 그저 강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옳게 길을 잡아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공부가 몹시 중대하고 급하여서 모든 선지식들께서 경책하시고 간곡하게 하신 말씀들이 쌓이면 태산이요, 깔리면 바다와 같으니 후학된 몸으로서 당연히 살펴봄이 마땅한 일이다.

속가에서 그저 밥이나 축내고 부모님의 억장이나 무너지게 하는 망나니가 다행한 인연으로 머리깎고 중이 되었으나 그 업장이 두텁기가 형언할 수 없어 공부를 해도 그저 망상이나 피우고 끊임없이 번뇌에 시달리니 백날 천날이 되어도 진전은 없고 매양 그 자리이다. 그러니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두터운 업장이라도 녹이고 다음 생에 지옥이라도 면할라치면 강당에서 대중에게 수순하면서 여러 가지 습의도 익히고 조사 스님네의 말씀도 들어서 스스로 자꾸자꾸 깨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수승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 하나의 실수

신범(信範) / 치문

‘ 짹’.

새벽 3시 18분. 영산전 앞에서 들리는 이 조그만 손뼉 소리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치문반 스님들을 대응전으로 향하게 하는 신호음이다. 이제 막 방부를 들인 나에게 처음 맡겨진 소임 아닌 소임이었다. 간단한 일이라 별 무리 없으리라 생각하며 이른 새벽 약간의 설레는 마음으로 가볍게 큰방을 나선 나는 상쾌한 기분으로 영산전 앞으로 갔다. 먼저 나와서 줄을 서있는 스님들을 보면서 빨리 대중생활에 적응하여 스님들과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도반이 되리라 다짐하며 나의 첫 박수를 쳤다.

‘ 짹’. 도반 스님들은 약간 멈칫하며 왼쪽으로 돌아서서 대응전으로 천천히 한 줄로 걷기 시작했다. 막 영산전을 벗어나려는 순간 뒤늦게 나온 스님이 허겁지겁 뒷줄에 붙으며 “3시 18분에 손뼉을 치는 겁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며 앞으로 뺨하니 걸어나간다. 스님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미처 시간을 보지 않고 손뼉을 친 나의 실수였다. 그 스님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첫날 아침 좋은 기분을 망친 것 같아 언짢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막 치문에 들어선 내 가슴속의 초발심은 견고하기 그지 없었다. 오히려 조금의 실수는 나를 성숙시키리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려 했다.

이렇게 대응전에 들어가 예불을 마치고 여러 스님들과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난 뒤 저녁예불을 하기 위해 다시 영산전 앞에 모였다. 저녁에는 6시30분에 부처님께로 가는 손뼉을 치게 된다. 첫째 날 하루일과를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참회하며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기 위해 부처님께로 가는 마음을 달래며, 아침과는 달리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며 시계를 본다. 6시30분. 이제 박수를 쳐야 할 때다.

‘ 짹’.

‘ 짹’하는 소리는 나지 않고 장삼자락이 손바닥 사이에서 소리를 막아버렸다. 장삼자락을 걷어내고 다시 손뼉을 치려는 순간 ‘ 짹’ 성질 급한 어느 스님의 박수소리가 들린다. 손뼉하나 제대로 치지 못하느냐는 듯한 스님들의 눈초리를 느끼며 묘한 기분으로 대응전으로 향한다. 실수가 나를 성숙시키리라는 새벽의 생각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는 이 실수를 만회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살짝 생긴다. ‘그래 예불할 때 목소리도 크게 하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속으로 다짐하며 목청 높여 정성껏 예불을 했다. 예불을 끝내고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대응전을 나와서 저녁 간경을 마치고 취침준비를 끝낸 후 공사를 시작했다. 몇 가지 보고와 공지사항에 이어 찰증스님께서 “예불할 때 대중스님들의 예불 소리에 맞추고 운곡을 틀리게 하거나 튀는 소리를 내지 말라”고 말씀 하셨다. 뜨끔하다. 또 실수했구나.

대중생활이라고는 행자교육원이 처음인 나는 전혀 기본을 모르고 있었다.



엄격한 시간 준수, 깨끗한 일 처리, 화합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자세 등 대중생활의 덕목들이 전혀 몸에 배어 있지 않았다. 출가하기 전에 혼자 공부하던 생활이 사고와 행동을 대중생활과는 점점 멀게 한 탓이리라.

실수를 통해 배운다지만 크고 작은 나의 실수가 나뿐만 아니라 옆의 스님들도 짜증나게 만들었다. 처음 일주일간은 정말 실수 연발이었다. 공부 잘해서 좋은 스님이 되리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부푼 가슴으로 당당하게 이 송광사 일주문에 들어섰건만 처음 내가 맛본 것은 계속 이러다가는 생활하기 힘들겠다는 위기의식이었다. 오월은 밝고 따스한 햇빛, 예쁜 꽃과 더불어 온화한 기운을 만들어 내건만 나는 햇빛 아래서도 세상의 밝음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져 있었다. 나 자신도 점점 퇴굴심을 일으키며 소극적으로 되어가고 있었고 주위 도반 스님들을 대하는 것도 자신이 없었다. 작고 사소하게 생각했던 작은 일들이 나를 여기에까지 몰고 간 것이었다. 남자는 크고 거칠어야 멋있다는 이상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다. 좋은 스님이 되어서 밝은 마음을 후세에 당당히 전하리라는 나의 서원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 ‘그래. 송광사에 인연이 닿은 이상 인연이 다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송광사를 내 집처럼 생각하고 도반 스님들과 윗반스님들을 부모형제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자’는 생각에 머무는 순간부터 나의 생활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주위 스님들과 말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실수의 횟수도 조금씩 줄었으며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면서 일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져 갔다. 이즈음부터 나는 사시 불공 때 부처님공양을 옮기는 소임을 하게 되었다.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을까? 처음 부처님공양을 옮길 때 가슴속에서 요동치던 맥박소리, 모든 스님들의 시선, 불기를 받든 손과 신중단으로 불기를 들고 걷는 발걸음,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식을 집중하게 했다. 나는 작은 움직임 하나 하나에 정성을 불어넣었다. 경쇠 울림에 맞춰 불기 뚜껑을 열며 ‘부처님 공양 천천히 맛있게 드십시오!’ 라는 인사도 함께 할 수 있었다. 하루이틀 지날수록 가슴이 떨림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걸음과 불기 잡는 손에서도 자유로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부처님 앞에서 공손히 절하는 나의 모습과 부처님의 부드러운 시선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것이 안상(安詳)일 터였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감도 생겼다. 여러 대중스님의 시선에서 자연스러워질 수 있고 두려움과 오만과 자만에서 벗어난 지금까지 내가 알아온 자신감과 다른 아주 편안함이 담겨있는 자신감이었다. 문제도 해결책도 주위에 있었다. 그래 이렇게 배우는가 보다. 실수, 위기, 극복, 자신감, 편안함. 이런 것이 수행인가 보다.

나는 또하나의 실수를 만들기 위해 종고루로 간다.

뎡... 뎡... 뎡...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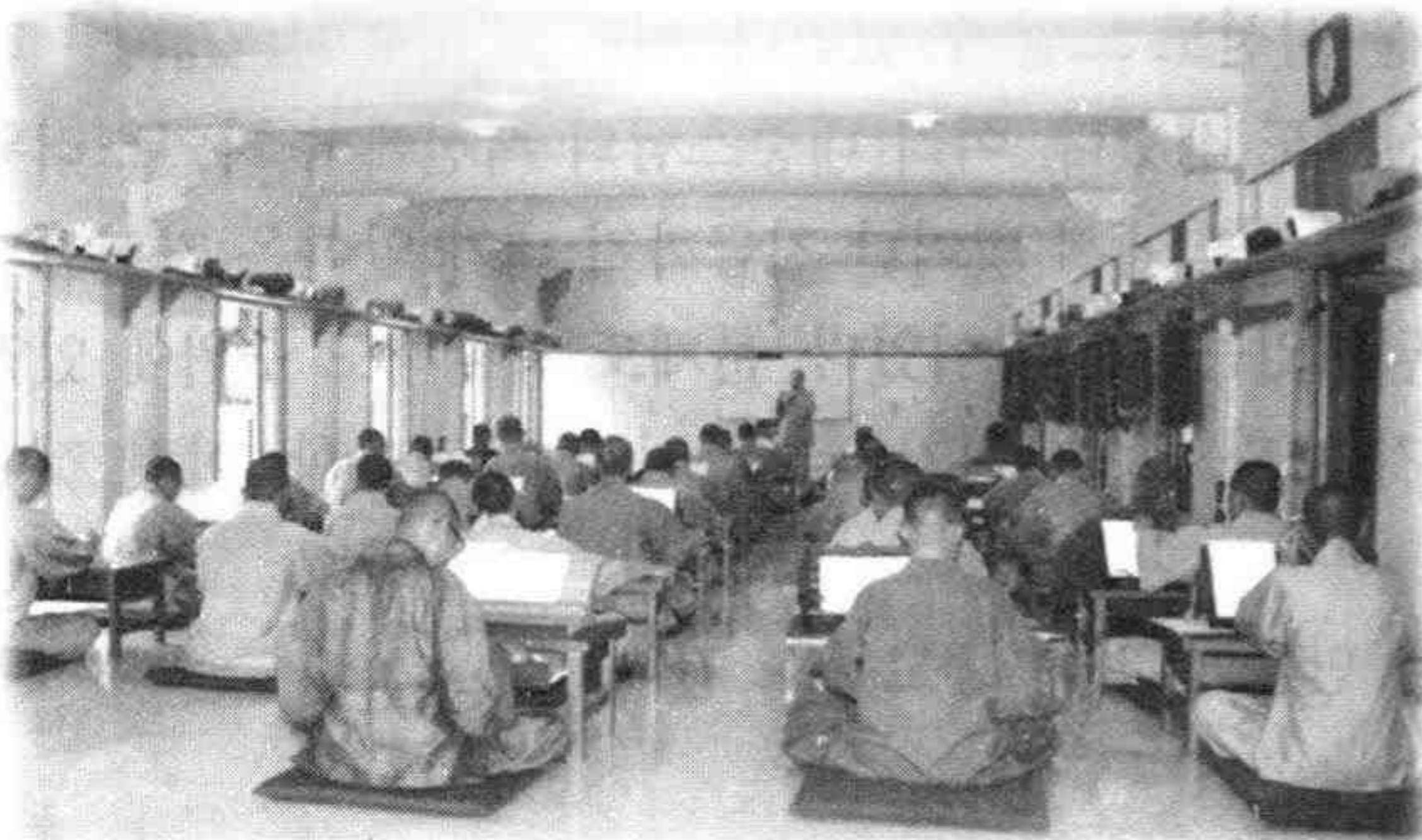
3월 1일 제10회 강원졸업식

도은, 한운, 자월, 지안, 마공, 일대, 보안, 정륜, 도요, 연각, 염혜, 승석, 본각, 연봉, 범우, 태연스님 이렇게 16분의 스님이 4년간 승려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배우고 익혀, 수행자로서 또 다른 첫발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스님 축하합니다. 최선을 다하신 스님들의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3월 3일 ~ 3월 10일 대만 불광사 방문

대교반 스님들이 방장스님, 강주스님, 학감스님을 모시고 자매결연을 맺은 불광사에 작년 이어 두 번째로 다녀 왔습니다. 대만스님들과 토론회 등 다양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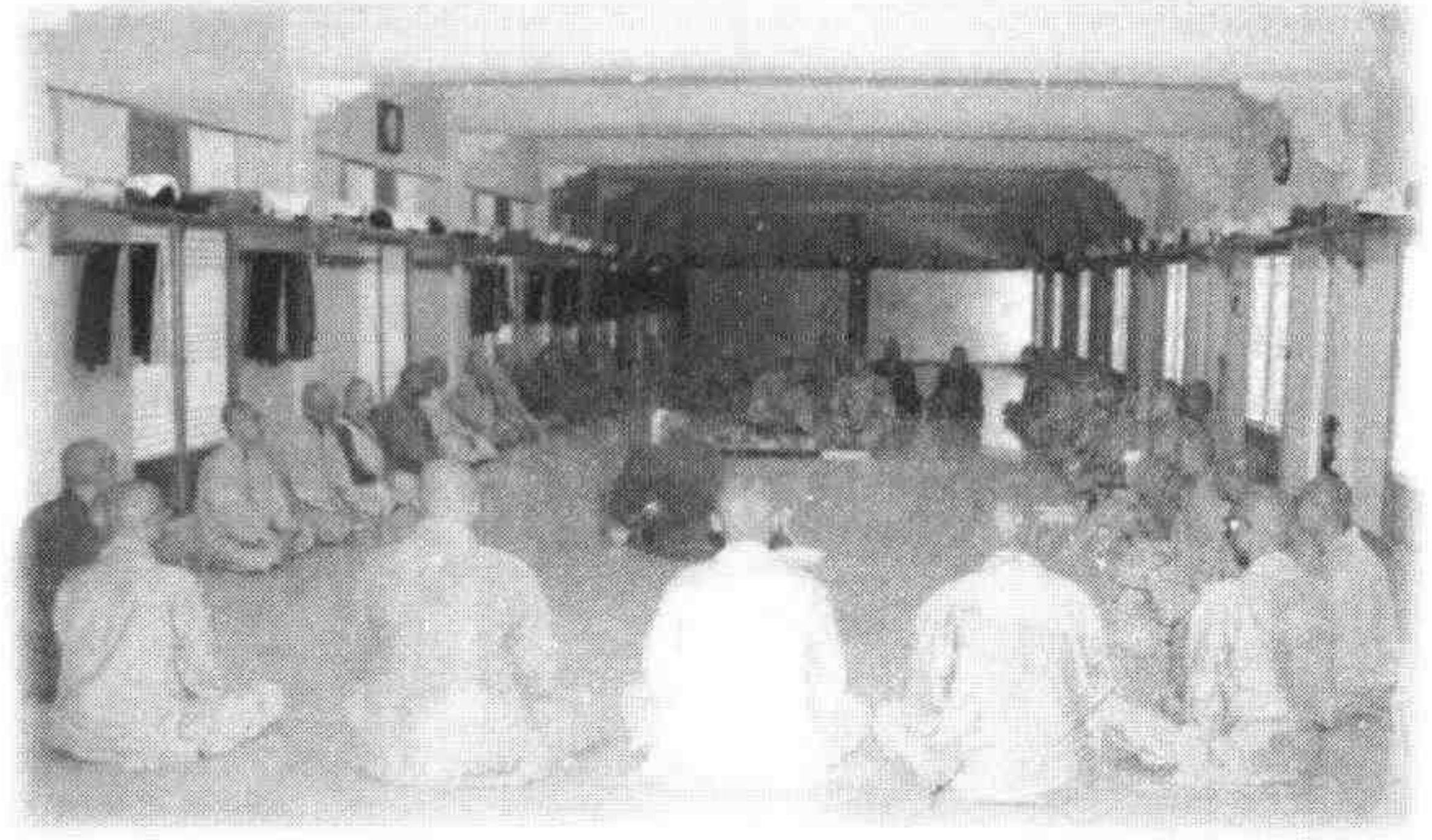


4월 20일 ~ 5월 7일 중국어 특강

큰지난 산철에 이어 대만에서 오신 윤욱 스님의 강의로 중국어 특강이 있었습니다. 중국어는 물론 대만 불교와 우리 나라 불교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4월 29일 차시음회

조계산에서 자란 차잎을 따서 강원 학인 스님들이 정성껏 차를 만들어 강주스님, 강사스님을 모시고 차시음회가 있었습니다. 차는 敬·寂·淸의 성품을 갖고 있어서 차를 마시는 이들은 이 성품을 닮게 된다고 합니다.



5월 2일 비로자나불 점안식

사자루 비로자나 부처님 점안식이 있었습니다. 사부대중이 약 300여명이 모여서 동당스님의 집전으로 장엄하게 거행하였습니다. 청정한 범신이 시방삼세에 두루하시기를 발원합니다.



5월 10일 ~ 12일 3월불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제 789회 보조국사 종재를 봉행하고, 보살계 수계산림과 가사불사 회향식이 있었습니다. 강원 학인 스님들도 각자의 맡은 소임을 빈틈없이 처리해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었습니다.



6월 5일 발치기 운력

‘에어컨 부럽지 않다.’

법성료, 해청당, 정혜사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주는 발치기운력을 했습니다. 발 사이로 부는 시원한 바람은 수행하면서 흘린 땀을 식혀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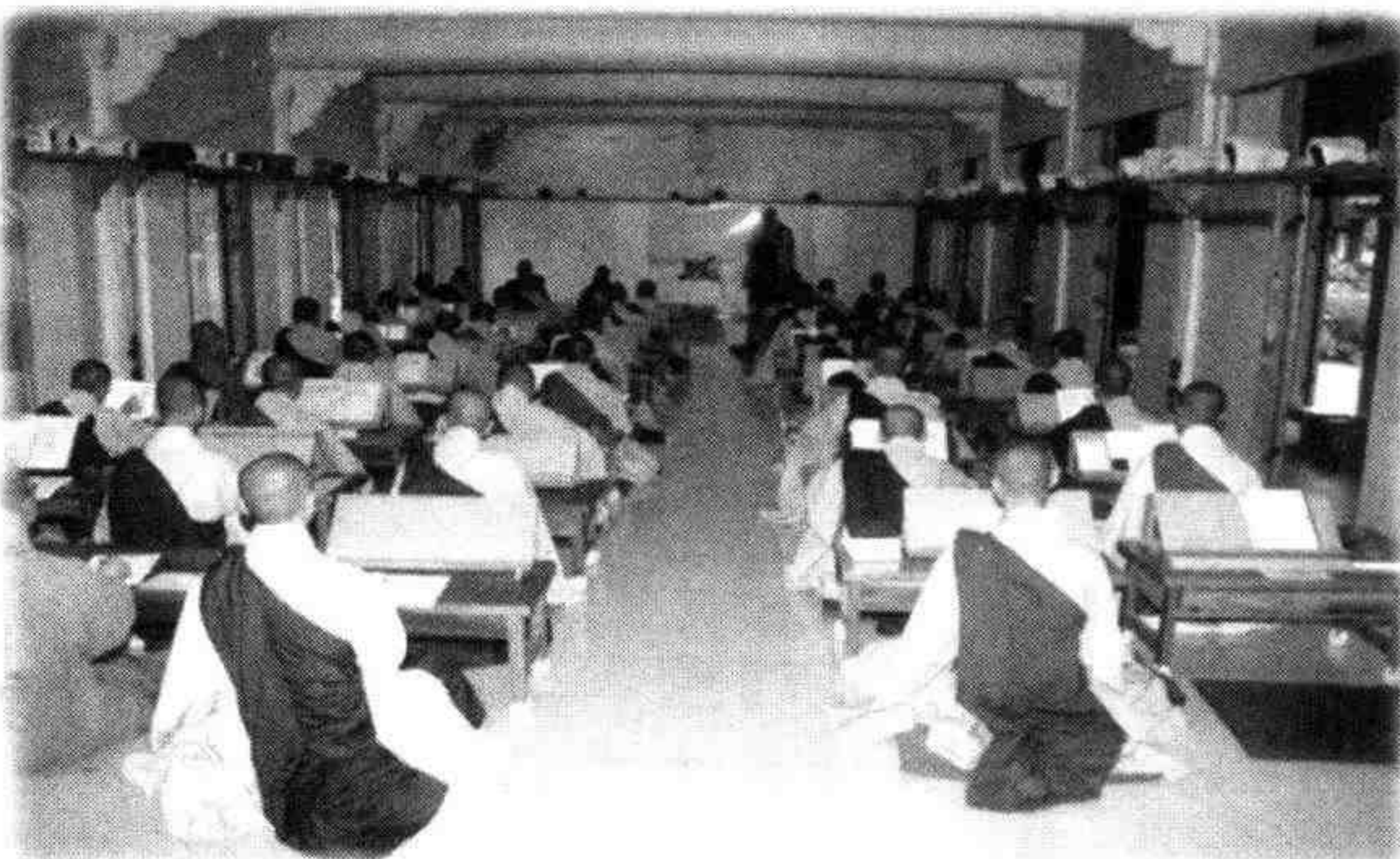
6월 21일 일각스님 사리탑 제막식
전 방장스님이셨던 일각스님 사리탑의 제막식이 5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탑전에서 있었습니다.



7월 6일 감자운력
하지때 수확하는 감자는 일년중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대중스님 모두가 감자 수확하는 데에 힘을 모았습니다. 산더미같던 일도 스님들의 빠른 손놀림에 금방 끝나 버렸습니다.



7월 14일 반결제 산행
하안거 반결제를 맞아 조계산 산행을 통해 그동안 수행에만 온힘을 쏟아 긴장되어 있던 몸과 마음을 쉬어주고 앞으로 남은 결제 동안 더욱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7월 15일 환경문제 특강
석천사 진옥스님은, 21세기는 환경문제가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환경문제의 해결은 연기와 생명존중정신의 바탕 위에서 철학적 대안과 실천적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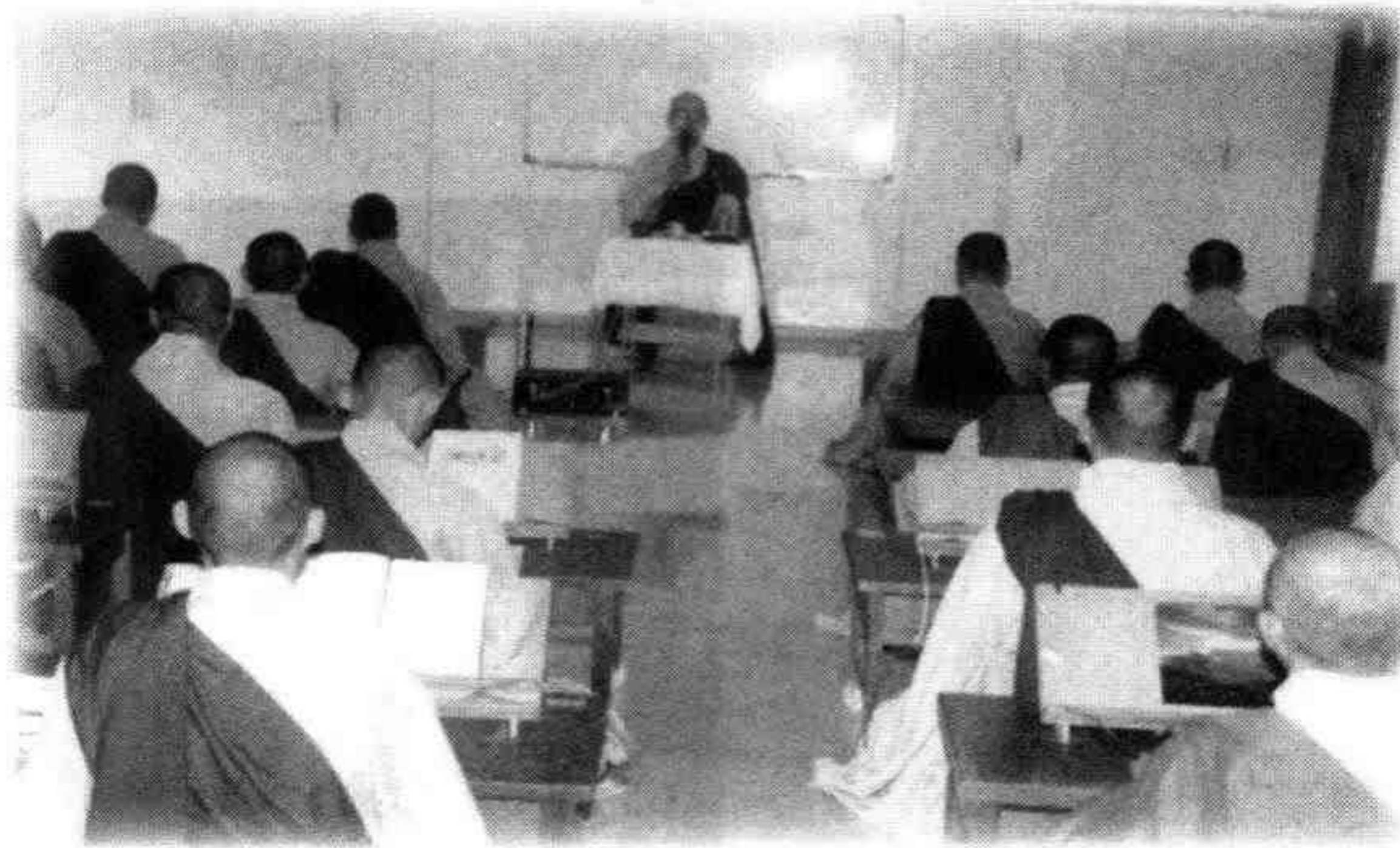
7월 16일 전강연 학술세미나

전국 전통강원 학인 스님들이 모인 가운데 우룡 큰 스님의 ‘학인으로서의 수행자세’에 대한 법문, 해인 사선원 유나 원용스님의 ‘간화선’ 강의, 초펠스님의 ‘티벳불교’ 강의를 내용으로 학인스님들과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7월 18일 지관스님 일본불교 특강

10년 동안 일본에 유학하여 불교학을 연구하신 지관 스님께서 일본 불교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일본불교는, 학문으로서 불교학은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실천적인 수행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30년 전에는 존경받던 스님들이 지금은 점점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본불교를 비판, 분석함으로써 우리 불교의 위치를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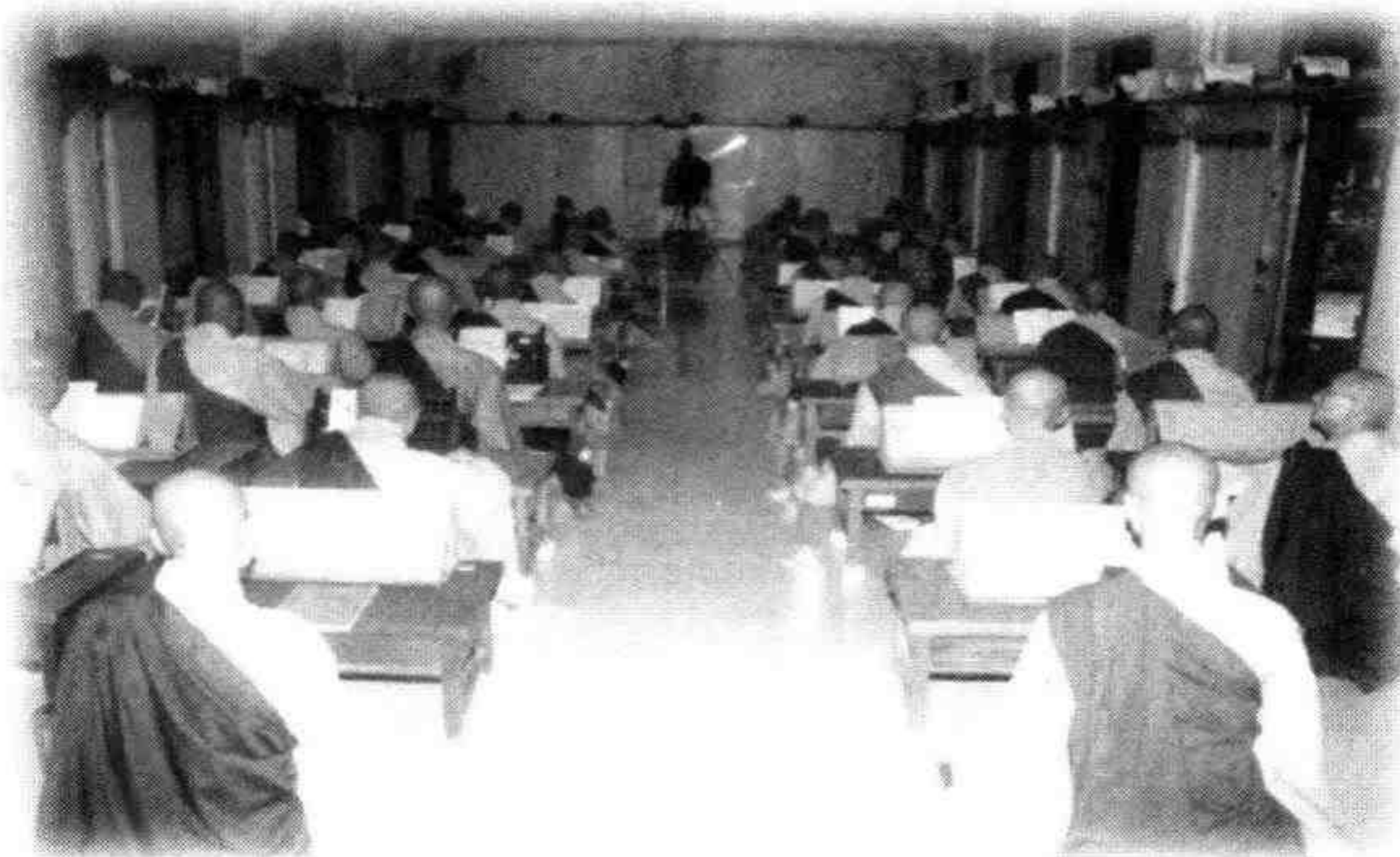
7월 26일 감로 심장회 검진

진주의 감로심장회 의료진이 송광사를 방문하여 선원 및 강원을 비롯해 사중스님들에 대한 무료검진을 했습니다. 수행에 바빠서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7월 27일 ~ 8월 5일 염불 특강

행자 교육원 교수사 스님이신 정오스님으로부터 염불습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용의식(日用儀式)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았고, 특히 강조하신 ‘의식을 행할 때의 마음가짐과 위의’는 초발심 학인의 자세를 일깨웠습니다. 장엄한 송광사 염불에 이제 습의까지 익혔으니 언제든지 목탁, 요령 맡겨만 주십시오.



불일 보조 국사 이래 대대로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를 승보종찰이라 부른다. 면면히 사자상승(師資相承)되었던 16국사의 자취를 살펴봄으로써, 정혜결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 선양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호에서는 제2세 진각국사 혜심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획연재

2世 祖師
진각국사 혜심



스님의 휘는 혜심(慧諶)이고 자는 영을(永乙)이며 호는 무의자(無衣子), 속성은 최(崔)씨, 전남 화순군 화순읍내의 한천(일명 車泉)부근에서 태어났다. 스님의 속명은 식(寔)이고 아버지는 완(琬)이고 향공진사(鄉貢進士)이며 어머니는 배(裴)씨이다.

어머니는 스님을 갖기 전에 한 꿈을 얻었는데, 갑자기 온 천지가 깜깜해지더니 뇌성벽력이 세차게 울리고 이어 하늘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악(天樂)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 뒤 바로 잉태를 했는데 열두 달 만에 아들을 낳으니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조계산의 第二世 法主가 되는데, 그 때는 명종8년(1178) 무술세(戊戌歲)이다.

스님은 태어나면서도 보통의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 즉 태어날 적에 포의(胞衣)가 중첩으로 겹쳐서 마치 가사(袈裟)를 입은 것과 같았으며 태어난 지 7일 만에야 비로소 눈을 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면서 출가하기를 바랐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완강히 반대하는 한편 유학에 힘써 출사하기를 권하는 것이었다.

신종4년(1201), 24세에 사마시(司馬試)를 마치고 곧 태학관(太學館)에 들어갔는데 고향의 어머니 신양(身恙)이 위중하다는 기별이 왔다. 스님은 외가의 형님댁에서 시병(侍病)하면서 어머니를 위해 경전을 독송하고, 관불삼매(觀佛三昧)에 들었는데 병석의 어머니는 꿈에 제불보살이 사방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에

보조국사가 주로 남자들에게 발심(發心)하여 수선(修禪)하기를 권장했다면, 진각국사는 수선하는 남자들이 수행하면서 옛 조사의 행적과 송구(頌句스)를 통해 오도(悟道)하기를 요망하다.

**간화선의 한국적 수행은
지눌이라고 하더라도
간화선의 전개에는 혜심의
역할이 컸다.**

워싼 것을 보고는 이내 병환이 나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래 살지 못하고 이듬해에 별세하니 스님은 어머니를 위해 재를 지내드리고자 조계산 길상사로 보조국사를 찾아 뵈었다. 당시 보조국사는 팔공산 거조암에서 지리산 상무주암으로 이석하였다가 조계산으로 옮긴지 1, 2년이 된다. 그래서 길상사가 새로운 선수행의 도량으로 많은 사부대중의 기대와 부러움을 동시에 지닌 채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다.

스님은 어머니의 49재를 원만히 회향하자 어려서부터 꿈꾸어 왔던 출가에 대해 국사께 아뢰었더니 국

사는 일언지하에 승낙하고 머리를 깎아주는 것이었다. 국사께서 스님의 출가를 이내 허락한 데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다. 스님이 길상사에 오기 전날 국사의 꿈에 중국의 설두 중현(雪竇 重顯) 선사가 길상사에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사는 이상히 여기고 있던 중, 스님의 예방을 받고 스님이 범기임을 곧 간파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혜심과 지눌과의 관계는 시간상 그리 길지 않다. 혜심의 출가(出家)가 고려 신종5년 임술년(1202)이고, 지눌이 입적(入寂)은 희종 6년 경오년(1210)이므로 최장의 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8년 정도이다. 이 8년간을 같은 처소에서 동거 수행한 것도 아니니, '을축년 가을, 보조국사께서 억보산(億寶山)에 계실 때 혜심은 수좌 몇 사람과 함께 찾아뵈었다...' 고 한 것으로 보아 을축년, 즉 1205년 이전에도 주처(住處)를 함께 한 것은 아니며, 1208년에도 지리산을 떠나 수년을 지냈다고 하였으니, 혜심이 지눌과의 시간적 유대관계는 불과 수년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짧은 기간에 수선사 第一世와 第二世의 사제(師弟)관계로 맺어진 것은 지눌이 혜심의 오처(悟處)를 간득(看得)한 데서 기인된다.

두 분의 수행의 행적을 보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법을 인가하심이 자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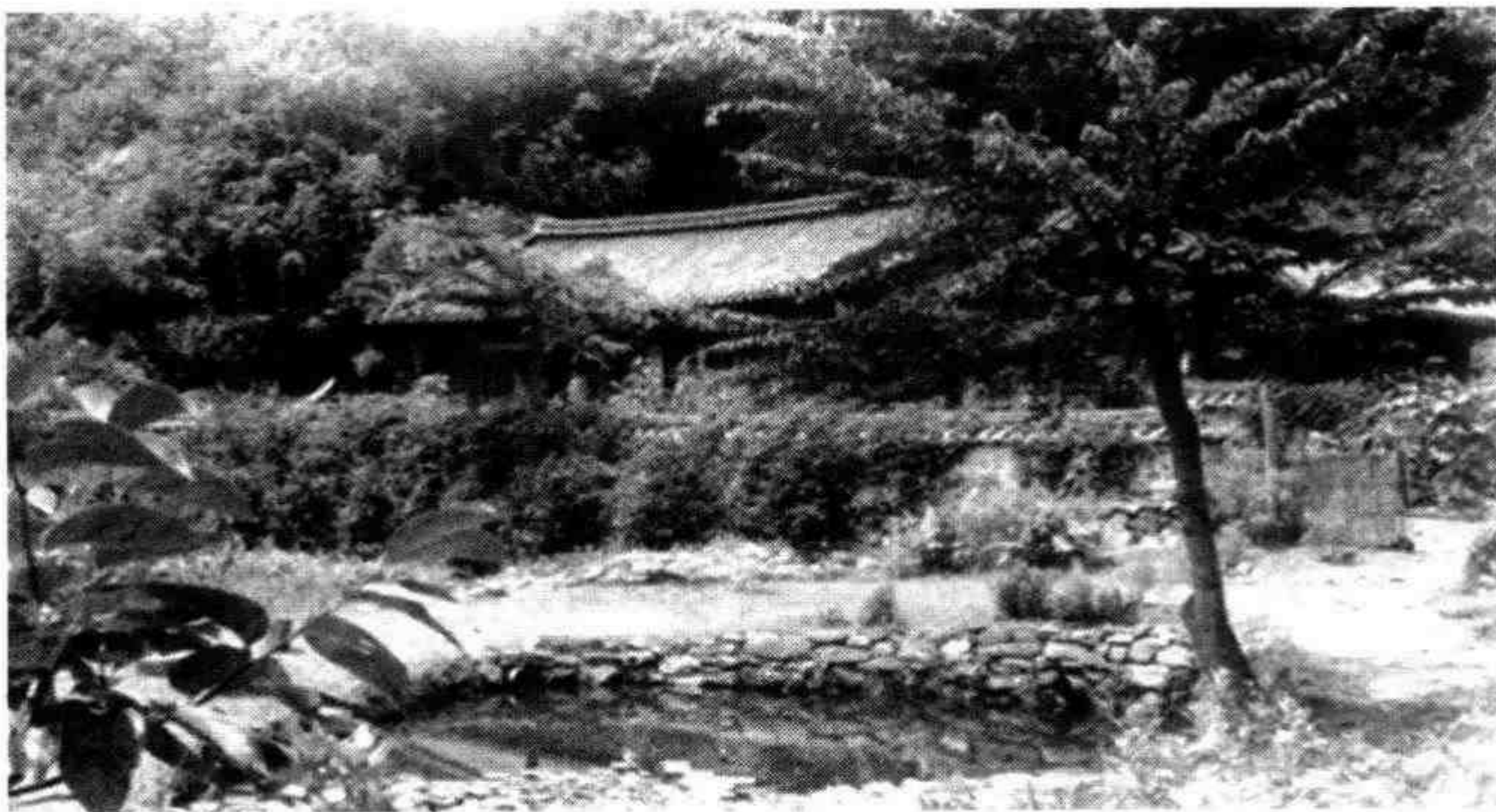
스님의 나이 28세에 도반 몇 사람과 함께 광양군 억보산(億寶山) 백운암(白雲庵)에 있는 보조스님을 뵈러 갔다. 산중턱에서 땀을 식히던 중 보조스님께서 시자를 부르는 소리를

“삼종병인은 어느 곳을 향해 길을 낼 것인가?” 이 물음에 스님이 손으로 창문을 한번 두드리니 큰스님께서 크게 한번 웃으시다.

예전에 스승님 손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제자의 손바닥 안에 있네 만일 더위가 미친 듯 몰아치면 맑은 바람 일으킴도 방해롭지 않으리.

또 길상사에서 큰스님께서 상당(上堂)하여 이르시기를 “어떤 스님이 조주화상에게 묻기를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대중들이여 이 무자화두(無字話頭)야 말로 커다란 악지악각(惡知惡覺)을 부수는 날카로운 무기이니

▼ 광원암 전경



듣는 순간 문득 시상(詩想)이 떠올랐다.

呼兒響落松蘿霧 煮茗香傳石徑風
才入白雲山下路 已參庵內老師翁
소나무 사이로 아이 부르는 소리 들리고
차 달이는 향기는 바람결에 물어온다
백운산 아랫길에 막 들어서자
이미 암자의 큰스님을 뵈 듯하네

암자에 다다라 이 계송을 적어 올리니 스님께서 부채를 건네주셨다. 이 부채를 받고 한수를 더 읊었다.

昔在師翁手裏 今來弟子掌中
若遇熱忙狂走 不妨打起清風

십종병(十種病)에 걸리지 말고 잘 참구해 나갈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십종병에 걸리지 않고 참구해 나갈 것인지 대중은 일러보거라.”

이에 대중은 아무 말이 없는데 스님이 일어나 여쭙다.

“삼종병인이라야 바야흐로 이 뜻을 알 것입니다.”

큰스님이 이르시되,

“삼종병인은 어느곳을 향해 길을 낼것인가?”

이 물음에 스님이 손으로 창문을 한번 두드리니 큰스님께서 크게 한번 웃으시고 방장실(方丈室)로 돌아가셨다. 이어 은밀히 부르시고는 말

씀하시길

“너를 얻었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 너는 마땅히 불법으로서 임무를 삼아 본래 서원을 바꾸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둘 사이에 오고 간 계송이나 대혜의 십종병(十種病)에 대해 문답하는 가운데 지눌의 심중(心中)에 이미 혜심을 인가(印可)한 것이며, 수선사 第二 책임자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吾既得汝 死無限矣(내 이미 너를 얻었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한 것은 모든 수선사의 책임을 혜심에게 넘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포한 표현이요, 단순한 오증(悟證)을 인가(認可)하는 수행 점검의 태도를 넘어선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행의 실제에 있어서 혜심은 스승인 지눌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또한 어떤 공안을 받았으며 어떻게 수행했는지는 기록으로 전해지는 바가 없으며, 다만 희종 4년 무술년(1208), 즉 지눌의 입적 2년 전에 사석(嗣席)코자 했으나 혜심이 극구 사양하여 지리산을 떠나 수년 동안 자취를 감추기까지 했었고 그 후 희종 6년 경오년(1210), 즉 지눌이 입멸후 입원개당(入院開堂)했다.

스님이 조계산의 법주(法主)가 되자 사방의 납자(衲子)와 도속(道俗)의 고사일로(高士逸老)들이 구름처럼 몰려 들어 당우가 비좁을 정도였다. 이후 많은 곳에서 법석을 펴셨고, 저서로는 <선문염송(禪門拈頌)> 30권과 <구자무불성화간병론(狗子無佛性話揀病論)>,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 등을 남기셨다.

스님이 57세 때(1234년) 봄에 스님은 화산(華山) 월등사(月燈寺)로 옮겨 정양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자 마곡(麻谷)이 뵈러 왔다.

스님은 제자를 보자,
“이 늙은이가 오늘은 통증이 심하구나.”

마곡은 스승의 안색을 살피며 여쭙는다.

“무엇이 있어 스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스님은 게로써 대답하기를,

衆苦不到處 別有一乾坤
且問是何處 大寂涅槃門
못 고통이 이르지 않는 곳에
따로이 한 세계가 있나니
그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크게 고요한 열반문이라 하리라.

이어 주먹을 세워 보이면서
“주먹이 곧 해탈선(解脫禪)이니 너희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다시 손바닥을 펴고,
“합하면 한 뭉치를 이루나니 펴고 합함이 자재하고 하나와 많음이 결림없도다. 비록 이러하나 주먹은 곧 본분설화가 아니니 어떤 것이 본분설화인고?”

스님은 곧 이어 주먹으로 창문을 한 번 두드리고 크게 웃었다.

6월 26일에 제자들을 불러 뒷일을 일일이 부촉하고 마곡에게 이르기를,

“이 늙은이가 오늘은 매우 바쁘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늙은이가 매우 바쁘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가부좌한

채 미소를 띠고는 곧 대적삼매(大寂三昧)에 들었다. 다음날 월등사의 북쪽에서 다비례(火葬)를 하고 영골(靈骨)을 수습하여 본산(本山)으로 돌아갔다. 주상은 이 소식을 접하자 진도(震悼)하고는 시호를 진각국사(眞覺國師)라 내리고, 이듬해 5월 수선사(修禪社) 북쪽 광원암(선문염송을 편찬한 곳)에 부도를 세우고 탑액을 원조지탑(圓照之塔)이라 하사하였다. 스님의 세수(世壽)는 57, 법랍은 32夏였다.

그럼 혜심의 행적에서 중요한 특성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간화선의 보급이다.

혜심과 지눌의 선사상을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눌의 저서 중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을 제외한 모든 저술에서는 간화선 사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눌의 일반적인 선사상을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 의한 간화선 사상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상충되는 점도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혜심의 선사상은 그 전반적인 요지가 간화선 일문(一門)을 주장하고 그것에 의한 간화수행도(看話修行道)를 실수(實修)할 것을 제시했다. 교외(敎外)의 선이요 정혜를 포함한 간화(看話)이며 신(信)은 오직 방편이라고 하였다. 또한 수묵치선(守默痴禪)의 묵조(默照)와 심문광혜(尋文狂慧)의 의통을 경계하였으며 오직 선수행에 있어서 묵조(默照)와 의리(義理)를 배격하고 간화선수행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의 사상은 지눌의 일반적인 선

주먹이 곧 해탈선이니...



▲ 광원암에 있는 진각국사 부도

사상보다 혜심의 간화선사상과 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은 비록 지눌의 저술이라고 하더라도 혜심에 의해서 지눌의 입적 5년후 그 유고(遺稿)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므로 간화선의 한국적 수행은 지눌이라고 하더라도 간화선의 전개에는 혜심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혜심은 간화일문(看話一門)이 실참실오(實參實悟)이며, 간화(看話)에 의해서 망상이 치유되고 무심(無心)도 간화참구(看話參究)가 수반되어야 하며, 다허(多虛)가 소실(小實)만 못한 것이므로 오직 참수실참(參須實參) 오수실오(悟須實悟)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간

화선의 주장이 지눌에 의해서만이라고 생각되었던 일부 견해와는 달리 혜심의 간화선적 입장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의 제작이다.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제작의 역사적 의의는 중국의 선사상을 우리 것으로 표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당시 기초자료가 풍부하지도 못했고 중국을 다녀오지도 않은 혜심이 인도와 중국의 사상을 우리의 안목과 정서로 전환시켜가며 선지(禪旨)를 이해했다는 점이 오늘날에 있어 큰 의미를 준다.

특히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은 보조국사의 <수심결(修心決)>,<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등 여러 저술과 비교해 보면 매우 대조적인 면을 발견하게 된다.

즉, 보조국사의 저서는 주로 납자들에게 발심하여 수선하기를 권장한 면이 장점이라 한다면 진각국사의 저서는 수선(修禪)하는 납자(衲子)들이 수행하면서 옛 조사스님들의 행적과 송구(頌句)를 통해 오도(悟道)하기를 요망한 글이라 하겠다.

그래서 보조국사의 저서들은 수행 납자들의 안식처인 총림을 개설한 것과 그 의의가 걸맞다 하겠고, 진각국사의 저서인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은 총림에서 상당기간 수행을 쌓은 납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니라.

셋째는 그의 시세계이다.

그의 저서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은 문학적 소양이 듬뿍 담긴 저

작물이다. 그 스스로가 유지불(儒之佛)이라 칭했을 만큼 문학창작은 그의 일생에 걸친 주된 관심사의 하나였다. 그런 연유로 시집에 수록된 일련의 시들은 일반 시인의 작품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개인의 정서가 스스로없이 노래되고 있다. 승려의 붓끝에서 나온 작품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만큼 보편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진솔한 서정이 담겨 있는 시들이 지면을 상당량 차지한다.

그렇지만 무의자는 속세의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걷는 구도자이다. 따라서 구도의 일상에서 느꼈던 심회(心懷)가 자연스럽게 시로 표출(表出)창작되어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의 또 다른 한 부분을 차지한 것도 사실이다.

승려의 신분으로서 수행과정에서 느낀 서정의 표출은 일반문사의 시와는 다른 모습임이 분명하다. 바로 선취(禪趣)가 물씬 풍겨나는 시들 때문에 무의자는 우리 문학사에서 최초의 선시작가로 꼽힌다.

불교에서 법은 스승과 제자의 이심전심으로 전래된다.

석가모니불의

염화미소(拈華微笑)가 그것이며, 1700공안이 그것이다. 지눌과 혜심의 만남 또한 고려 불교의 큰 전환을 마련하였다. 이 만남으로써 보조스님의 정혜결사(定慧結社)의 정신이 혜심의 선수행으로 연결되어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종찰(僧寶宗刹)로서 송광사의 수행 가풍(家風)이 수립되었다. 오늘 제 2조 국사 혜심스님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역사에 묻힌 옛 스승의 행적을 통해 새로운 신심(信心)의 촉발(觸發)과 대서원(大誓願)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3 일간의 도량석(道場釋)

염하(念何) / 치문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상큼한 바람이 코를 간지럽히는 산뜻한 기운이 나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흥분마저 느끼게 한다.

새벽녘에 항시 들던 죽비 소리가 아닌, 어쩐지 山寺의 분위기와는 다른 機械音인 알람 소리로 눈을 뜨며 주위의 사물로 위치를 파악하나 어딘지 모를 낯선 기분에 훌쩍 잠이 달아나 버린다.

睡眠 중에 아직 自己自身을 觀하지 못하기에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잠자리를 정돈하여 스님네께 想을 내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으로 도량석을 준비하면서 오래간만에 혼자 누워 잠을 청하다, 문득 예전에 늘 들던 그런 기계적인 소리와 낯선 분위기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총총한 별을 쳐다보며 解憂所에 들러 수각장으로 향한다. 죽염 치약으로 입을 행군뒤 싸한 기운에 찬물로 세안을 하니 개운하다.

어제 짬을 내어 깨끗이 빨아 다림질한 장삼, 주름 하나 없이 다려 놓은 가사를 수하며 가슴이 설레는 것은 아마도 처음하는 탓일 터이다

대웅보전 앞뜰에 다다라 벌써 행자님이 정결한 청정수와 우리 몸이라도 태우는 듯한 초와 향을 佛菩薩

님께 올리는 모습을 보며 더욱 신심을 내어 법당으로 간다.

三拜를 올리고 목탁과 채를 쥐지만 그것은 그냥 사물의 하나가 아니었다.

이 내 몸과 마음을 바쳐 佛菩薩님께서 가피를 내려 주시어 우리 스님들이 확철대오하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침에서 깨어나시라고, 밤새 먹을 것을 구하여 구천을 떠돌아다닌 아귀들이 이제는 날이 밝아짐에 어둠의 무지에서 깨어나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번뇌망상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도량을 돌며 청아한 목탁의 울림소리를 흠어 놓는 것이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 수리수리 사바하...”

이른 새벽 목이 터지 않아 켄켄하게 나올까 걱정이 되었으나, 진언의 가피 덕인지 아니면 긴장한 탓인지 걸림이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

승보전의 옛 스님들 기침하세요 야외 解憂所 옆의 용왕 시녀들도 깨우고, 사천왕계도 인사 드리고, 드디어 큰 방. 천수다라니를 소리 높여 우리 스님네들 법당에 자리 마련됨을 알려 드리고 도량 곳곳마다 천수경과 목탁 소리로 티끌 먼지 없애고, 누구의 공양인가 허공중의 새벽이슬 한데 모아 감로수 만들어 일체중생의 갈증을 해소하게 하소서.

새벽 쇠송의 시작과 동시에 이제는 서막을 내리니 점점 고조되어 가는 분위기가 대중을 압도한다.

아침 상강례가 끝나고, 첫 강의시간이 비어 곰곰이 생각하여 본다. 정말 출가하기 잘 했다.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을까!
 이튿날, 어제와 다른 것이 있다면
 습의를 준비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시
 다는 것이다. 그러니 부담감은 어제
 했던 긴장의 갑절이나 된다. 개인적
 인 실수까지도 습의내용이 되면 어
 쩌나 하는 부담감으로 범성료, 계단
 에서 시작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큰방, 후원, 화엄전 오솔길, 목우헌,
 지장전 다시 대응보전으로 돌아와
 범당을 한 바퀴 돌아도 끝나질 않는
 것이다. 역시 처음하는 탓으로 임기
 응변이 통하지 않았다. 돌이켜보건
 대, 긴장도 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
 수행 부족한 듯, 자참으로 반성하고
 다음 날의 준비를 한다.

우리네 마음은 본디 3일이 큰 분기
 점이나 되듯이 마지막 날 도량석은
 매우 안정되게 마칠 수 되었다.

도량석과 저녁종송을 같이 하게
 되었지만, 만물이 생동하는 새벽보
 다는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이 약간
 은 덜 부담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衆生心 때문인가.

약간의 아쉬움과 다음에 좀 더 잘
 해보려는 기대감을 접어두고, 저녁
 공사시간.

“念何,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일
 간의 새벽 도량석과 저녁종송을 마
 치고, 내일부터는 曉頂스님께서 수
 고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道伴스님들의 도량석을 들
 으면 더욱 신심을 내어 범당으로 향
 하지만 그 때의 머트로움에 佛菩薩
 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절만 해
 댄다. 다음엔 꼭 ...!

모기에도 불성이...?

도현(道現) / 치문

여름입니다. 모두가 힘겨워하는
 계절이지요. 따가운 햇살과 숨막히
 는 무더위, 쏟아지는 땀방울. 매일
 같이 빨래는 쌓이는데 비라도 오는
 날이면, 눅눅함에 불쾌지수는 더욱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날은 여
 지없이 모기떼마저 극성을 부립니
 다. 모기 역시 생명인지라 비를 피
 해 건물 안으로 모여드는 것이 어
 쩌면 당연한지도 모를 일입니다.

추적추적 장마비가 내리던 날 새
 벽, 하얀 벽지 위에 무수한 점으로
 남아있는 모기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 통통하게 생긴 놈 몇 마리를 골
 라 가볍게 눌러주었습니다. 아빨
 싸! 벽지가 온통 빨갭게 물이 듭니
 다. 재빨리 물걸레로 닦아내고는
 서둘러 범당으로 향해 갑니다. 이
 날 따라 유달리 범당에서도 모기떼
 는 극성입니다. 절을 하는 동안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신중단을 향해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사이 발등을
 공략하는 모기들에게 꿈쩍없이 당
 하고 맙니다. 그리고 금강경 독송
 시간, 느리기로 유명한 송광사 염
 불소리가 이 순간만큼은 빨라졌습

니다. 아마 집착하시는 스님도 몇
 군데 물리셨나 봅니다. 하지만 도
 저히 참을 수 없는 시간. 바로 공포
 의 좌선시간이 남았습니다. 어찌
 손써 볼 수도 없이 그렇게 무작정
 10분을 버틴다는 것은 참으로 고행
 입니다. 수없이 모기에 물리며 예
 불은 마쳤지만 갑작스럽게 쓰린 속
 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급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낮
 시간을 활용하련마는 할 수 없이
 엉덩이에 무수한 영광의 상처를 남
 기고 그렇게 떠오르는 아침해를 맞
 이합니다.

이 정도로 당하고 나면 새벽에
 눈뜨자마자 모기를 잡는 나의 마음
 을 조금은 이해해주시겠지요! 하지
 만 발심한 출가자로서 '산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으며 자비를 베풀
 겠습니다'라고 외치던 나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기는 종족번식을 위해 본능적
 으로 목숨을 건 흡혈을 합니다. 하
 지만 나는 이미 쓸모 없어진 한 방
 울의 피값으로 한 생명을 빼앗았으
 니 그 과보를 어찌하겠습니까.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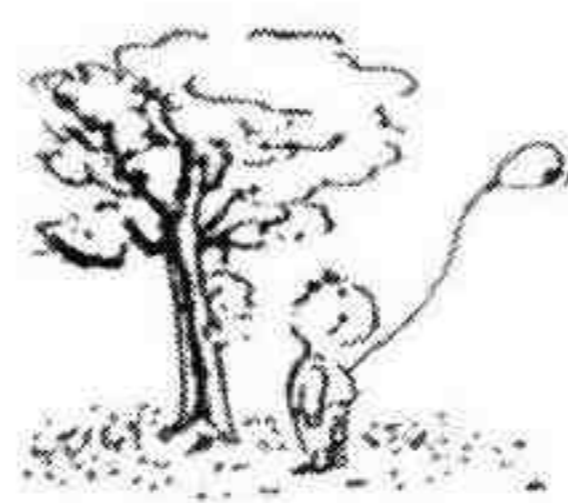
각없이 보이는 대로 마구 잡아죽이는 내 모습 속에는 다투기 좋아하는 ‘나찰’의 본성이 감추어져 있고, 어느 순간 참회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보살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겹치지요.

묻고 싶습니다. 모기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어찌하면 이 모기떼의 수난으로부터 현명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무작정 인육하며 보시행을 닦아야만 합니까? 아직은 자비심이 부족한 중생인지라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고 성내기 좋아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옛 어른의 이야기 한 토막을 떠올려봅니다.

옛날에 어느 재상이 한 소실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더랍니다. 물론 이 소실도 재상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시봉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재상은 소실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소문하여 알아보니, 마침 집에 왔던 숲장수를 따라 나섰더랍니다. 참으로 이상도 하지요. 남부럽지 않은 부귀영화 다 버리고 옷보따리 하나만 달랑 들고 숲장수를 따라간 소실. 재상은 그 소실을 찾겠다고 관직도 물러나고 이산 저산을 헤매다가 드디어 소실과 만나게 됩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 옛날의 꽃단장했던 화려함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하도 기가 막힌 재상이 두 손을 꼭 잡고는 함께 돌아가자 하여도 끝내 ‘내가 머무를 곳은 바로 여기’라며 말없이 돌아서는 소실의 뒷모습만 우두커니 바라보

며 대감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왜? 어째서 그녀는 부귀영화 다 버리고 숲장수를 택해야만 했나?’ 그길로 출가하여 이 문제를 화두삼아 참구하던 재상의 눈앞에 어느 날 한 환영이 떠오르더랍니다. 한 수행자가 몸 속에 이를 가지고 다니며 차마 죽이지도 못하고 추운 날에는 대통 속에 솜을 넣어 기르기도 하더니 하루는 마침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살그머니 곁에 있던 개에게로 옮겨주었답니다. 그때의 수행자가 지금의 재상이었던 자기이고 그 이(虱)가 소실이며 개는 숲장수더랍니다.

이렇게 한갓 미물일 지라도 인연따라서 그렇게 다시 만나는 것, 지금 내 몸에 붙어 피 한 방울 빨았던 모기가 훗날 나에게 어떤 소중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깊이깊이 생각하여 자비심을 내어야겠습니다.



어느 비내리는 여름날의 생각

보국(寶國) / 치문

이 곳 강원에 입방한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다. 더운 날씨 탓에 간경하느라 앉아 있는 것도 지루하게 느껴진다.

도량석 목탁소리에 눈을 떠 보니 등이 땀으로 축축하다. 문 밖으로 나와 보니 땅에 물이 고여 있다. 간밤에 비가 왔나 보다. 비를 피해서 모기들이 처마밑에 잔뜩 모여 있다. ‘아... 오늘은 법당에도 모기가 많겠구나.’

짧은 시간에 세수하고 법당에 예불을 들어가느라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땀이 마르질 않는다. 예불 시간에도 절을 하니까 땀이 계속 난다. 아니나 다를까 모기들이 사정없이 달려든다. 모기한테 물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제외하고는 온몸을 장삼으로 가렸다. 장삼만으로는 부족해서 가사로 최대한 감싸니까 좀 덜 물리기는 하는데 이제는 무척 덥다.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제일 고역이다. 모기 열댓 마리가 바로 얼굴 앞에서 날아 다니고 그중 몇 마리는 여기

저기 달라붙어 있다. 너무 신경 쓰여서 졸릴 틈도 없다. 일어서서 반야심경을 독경하는 그 짧은 시간에 발등과 발목을 여러 군데 물렸다. 예불보다는 모기에만 온 신경이 쓰이니 원... 나의 신심이 이렇게 밖에 안되다니.

예불을 마치고 큰방에 들어와 보니 땀으로 옷이 축축하다. 여기저기 모기한테 물린 곳이 너무 가렵다. 이어지는 간경 시간에도 모기한테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이다. 입으로는 책을 읽고 손은 계속 모기를 쫓기에 바쁘다. 아침 공양시간까지 계속 시달리다 보니 문득 난 왜 이렇게 유달리 모기가 많이 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데, 도대체 저 모기들과 전생에 무슨 악연을 맺었길래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전에 보았던 '사미율의'에서 합두대사가 전생에 받을 갈다가 무심코 지렁이를 죽이게 되었는데 금생에 그 지렁이가 황제가 되어 합두대사를 죽이게 되었다는 대목을 읽은 기억이 난다.

생각을 돌이켜 보니 지금 나를 괴롭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내가 전생에 지은 악업을 돌려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늘 남의 탓으로만 여기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진다.

도반 스님들과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중 말을 잘못하여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 진심어린 충고이든 실없는 농담이든 듣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

는 것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매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성격 탓으로 미루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농담하는 것은 기분 좋게 들으면서 내가 한마디 하면 별 말도 아닌데 화를 버럭 내버린다. 이런 경우를 당하면 아주 황당해져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한참을 생각하게 된다. 물론 말을 한 내가 잘못이지만 특별히 나한테 감정이 많은 것도 아닌 듯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의 성격 탓으로만 미루기에도 마땅찮다. 전생에 나와 깊은 악연이 있기 때문일까?

부처님 당시의 큰 제자들 중에도 항상 마음이 잘 맞아서 함께 다니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항상 마음이 잘 맞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 한다. 금강경에는 '이 경을 믿고 받아 지니면 모든 중생들이 공경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 그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무간 지옥에 떨어질 죄업이 있지만 이 경을 받아 지닌 공덕으로 그 죄업을 현생에서 가볍게 받는 것인 줄 알라.' 하였다. 그렇다면 나도 무간 지옥에 떨어질 죄업이 있지만 출가한 공덕으로 가볍게 받아서 갚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나를 괴롭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하고 한생각 돌이키니 괴로움이 한결 누그러진다. 항상 이

런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누우치면서 살고 싶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크고 작은 괴로움에 부딪히게 될 때마다 늘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문득 신라시대의 원효스님이 생각한다. 원효스님은 도를 깨우친 후 설법을 하였으나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신통으로 살펴보니 과거에 지은 공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서는 몇 년간 절에서 공양주 일을 하면서 복을 쌓았더니 그 후에는 많은 사람을 교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 송광사에는 후원일을 하는 행자님들의 수가 적어서 강원 학인 스님들이 몇 명씩 조를 나누어 1주일씩 교대로 지원나가서 일을 한다. 나는 하안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나가겠다고 자원하였다. 더구나 지금은 공양주 소임을 보던 행자님이 받을 다쳐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처지라 내가 밥을 대신 하기로 하였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면서 가만히 원을 세워 본다.

'이 공양을 받는 사람들 중 전생에 나와 악연을 맺은 이가 있거든 이제 그 악연이 모두 녹아 없어지기 바랍니다. 이 공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와 선한 인연을 맺어 세세생생 이어지기 바랍니다.'

智雲 講主 스님 앞.
 스님 공간 무사하십니까: 그동안 문안올려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오래동안 출타중이어서 이제야 (定慧社)
 불서를 보다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으로 송광사 강원의 놀라운 모습은
 감명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도
 꼭 송광사 강원에 가서 공부할 날이 있으리라고
 화신하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선족 불자들을 위해 열해보조저
 류의성 심양에 와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하실 일이 있으시면 성양으로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스님의 말씀 가르침을 바라면서
 스님의 법체 건강과 송광사 강원의 불교사업
 원만을 부처님 전에 합장합니다.
 一九九九年五月十七日
 明和 明實 合掌

답장

명화명실스님께
 귀의삼보하옵고.
 더운 여름 佛法弘布를 위해 苦戰奮鬪하시는 스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희 송광사에는 120여명의 대중스님들이 장마와 더위를 修行의 魔 삼아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일련의 편지를 받고 스님의 건강과 정진하는 모습이 如如함을 알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번 중국사찰 답사시 상세한 안내와 세심한 배려로 所期의 성과를 얻게 된 점 편지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230만 조선족중 승려가 10여명인 열악한 상황과 종교의 부자유 속에서도 포교에 열심인 스님들께 저
 와 松廣寺 講院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사정상 이곳으로의 유학이 힘들어졌다는 소식 참으로 유감입니다.
 온누리가 부처님 세상이기에 각자의 공간에서 수행하다보면 인연이 되어 한자리에서 모여 法談을 할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스님의 精進力으로 대륙의 곳곳에 부처님의 法音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1999년 8월 松廣寺 講院 講主 智雲 合掌

출가 후 그리고 ...

연덕(鍊德) / 치문

어머님 아버님 보십시오.

제가 집 떠난지도 9개월여 되어 갑니다.

그동안 별고 없으신지요?

무슨 말부터 어떻게 꺼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직장생활이며, 자신의 독립, 부모님의 모습, 동생의 결혼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란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태어나야만 했는가?' '나의 2세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야 하는가?' 등 일면 허무맹랑한 듯하지만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아려오는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러셨지요 '그냥 고생 고생 하면서 살았지 뭐! 나를 키우면서 그저 그렇게 이제야 좀 여유가 생기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생 고생 하며 겨우 겨우 사는데 그 생활을 버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생활이 싫었습니다.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죽음 저편에 또 무엇이 있는지, 밥 세 끼에 그렇게 아등바등해야 하는지 애써 고민했고 그래서 이길을 택했습니다.

처음 삭발을 하였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우시더군요. 저도 왜 그랬는지 하염없이 흘러 내리는 눈물에 그냥 그렇게 우두커니 한참을 울었습니다.

또 부모님이 찾아 오셨을 적에 제가 외면을 했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흔들릴 것 같은 생각에... 제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힘든 행자생활을 보내고 사미계를 받았지만 지금도 선뜻 전화 한통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외모만 중인 한낱 평범한 중으로 살지 말자는 각오 밑에는 가끔씩 섬뜩한 한(恨)으로 만든 칼날을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중은 속가와 인연을 끊어야 한답니다. 생사를 끊는 큰 공부를 하려면 그래야만 한답니다. 돌이켜 보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문득 문득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외로움은 애인이나 가족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줄 몰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언제나 집에 있어도 외로움은 있었고, 학교에 있어도 외로움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도 그랬고 없어도 그랬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곁에 누가 있는 것과 무관합니다. 어차피 자기가 할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뿐 가장 가까운 사람도 구경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제가 아파 죽어도 부모님이 그 죽음을 대신하실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제 자신을 믿듯 부모님께서도 저를 믿어 주셔요. 비록 지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기분이지겠지만, 그동안 제가 잘못된 나쁜 일로 부모님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 번 있는 인생과 젊음임을 알기에 확신없는 무의미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속가에 살던 부모님의 자식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한 사람의 수행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몸이 신명을 다바쳐 큰 깨달음을 열고 닦아 지혜를 증득하게 되면 부모님과 일가친척, 많은 중생들을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으로 이끌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부디 저를 잊으십시오. 하루하루 지나면 이런 생활도 몸에 익숙해지고 이 못난 자식도 한갓 휴지 조각처럼 버리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저를 마음에 두지 마시고 시간이 날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불쌍한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배려하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건강하기 어렵고 건강해도 부처님 말씀듣기 어렵습니다. 사람 목숨 길어보았자 80년. 4,50대에 목숨이 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모님이나 저나 결국은 다 죽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죽어가고 있고 영구차는 망월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거든 하루하루 시간을 아끼시고 틈틈히 절을 저처럼 가까이 하십시오. 또 제가 보고 싶거든 부처님 경전을 보십시오. 저도 그 경전을 보고 있으니 서로 마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 근본을 깨치지 못한 채 몇 해가 지났던가
다시 슬퍼하노니 뜬 세상에 부질없이 머뭇거렸습니다
이 불교 안에서 몇 사람이 도를 얻었던가?
나 혼자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떠끝속에 있었습니다.

삼가 짧은 글을 갖추어 알뜰한 사랑을 하직하고
큰 법을 밝히어 어버이 은혜를 갚기 원합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애끓게 서로 생각할 것 없나니
처음부터 이 몸이 없었다고 생각하소서.

숲속의 흰구름은 언제나 동무가 될 것이요
눈앞에 푸른 산봉우리는 항상 이웃이 되나니
세상의 명리를 아주 떠나고
인간의 애증을 영원히 이별하려 합니다.

조사의 뜻은 바로 言下에 깨닫게 함이요
그윽함은 글귀 가운데 참된 것을 꿰뚫고자 함이로다.
온집안의 친척들이 만나기를 요할진댄
곧 닥쳐올 바른 뜻의 종자를 기다리십시오.

금강산 순례기

화진(華眞) / 사교

중국인에게조차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산인 금강산. 누구나 한번쯤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것이다.

더구나 반세기 가까이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리라. 불가능할 것 같았던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으나 나에게서는 너무나 멀리 있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6월 2일에서 5일까지 실시된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 순례”에 방장스님을 모시는 시자소임으로 금강산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6월 2일. 출발 당일 불교도만의 금강산 순례를 축하라도 해주듯 오전까지 흐리던 날씨가 배의 출항에 맞춰 화창하게 개었다. 금강호에 승선후 방장스님을 모실 객실을 배정받고 어마어마한 배의 규모와 시설에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니, 대부분 종단의 중진스님들과 타종단의 대표스님들이고 나같은 사미승은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도 쌍계사 강원에 있는 진종스님이 총무원장스님시자로 참여하였기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서로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동해항을 출항하여 북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는 “민족 화합과 평화통일 기원 방생 대법회”가 열려 부처님 및 괘불 점안식, 방생의식이 치러지는 가운데 바다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내일의 일정을 위하여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나 금강산을 본다는 설레임으로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습관적으로 3시에 기상하여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니 파도를 헤치며 금강호는 계속 향해중이다. 동틀 무렵 북측의 산하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자 정말 내가 북에 왔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고

요함 속에 잠겨 있는 아름다운 해금강을 멀리 바라다 보며 장전항에 도착하였다. 장전항이 금강산 순례의 첫 시발점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장전항을 둘러싼 산세가 벌써부터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장전항은 규모는 작지만 천혜의 조건을 갖춘 항구였다. 배에서 바라본 장전항의 건물들은 도색을 하지 않아서인지 대부분 낡고 허술한 느낌이 들지만 자연환경은 깨끗하고 청정한 느낌이 들었다.

부속선으로 갈아타고 북측 땅을 밟는 순간 우리를 환영하는 것은 굳은 표정으로 서있는 통제원과 “금강산 관광객들을 동포애의 심정으로 환영한다.”는 붉은 글씨로 된 간판이었다. 그들의 주체사상을 느낄 수 있는 한 장면이었다. 엄격한 출입검사를 거쳐서 준비된 버스에 나눠 타고 첫날 순례지인 신계사터와 구룡폭포 코스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장전항에서 온정리를 거쳐 신계사로 가는 길은 우리들의 금강산 관광을 위하여 전용으로 만든 도로로 길양쪽으로는 철망으로 북측과 철저히 차단되었으며 중간중간 군인들이 부동자세로 배치되어 있었다. 버스 안에서 철망 밖으로 북측 주민들이 보이길래 손을 흔들어 보이니 군인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화답하는 것이 같은 동포임을 실감케 했다.

온정리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신계사터 입구로 들어서자 경주의 삼릉숲에 있는 소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우리의 소나무들이 쪽쪽 뻗어 군락을 이루며 길 양편으로 나열하여 우리를 반겨주고 있었다.

6.25때 폭격으로 전소되어 삼층석탑만이 남아있는 신계사터에 도착하자마자 방장스님께서는 노스님(효봉스님)의 출가지인 그곳에서 벽찬 감회를 이기지 못

삼층석탑만이 남아 있는 신계사터.
 입구로 들어서자 경주의 삼릉숲에 있는
 소나무처럼 아름다운 우리의 소나무들이
 도열하여 우리를 반겨주고... ■

하고 옳드려 삼 배를 올려 주위를 숙연하게 하였다.
 이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땅에서 봉행된 통일기
 원법회가 엄숙하게 30여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법회후 스님들을 위한 금강
 호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점심을 먹고 본격적
 인 구룡폭포코스 순례가 시작되었다. 금강산 제일의
 탐승지로 꼽히는 구룡폭포코스는 금강산의 10대미중
 산악미와 계곡미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코스이다.
 초입에서 만나는 휴양시설인 목란관과 양지대를 거쳐
 금강산의 산삼과 녹용이 녹아 흐르는 물이라는 쌍록
 수로 목을 축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의 금
 강산 절경이 펼쳐지며 본격적인 금강산이 시작됨을
 알리는 금강문에 도착하였다.

금강문을 통과하니 과연 금강산의 진수를 느끼게
 하는 절경이 펼쳐진다. 바로 옥류동(玉流洞)계곡이다.
 19세기 후반 영국인으로서 세계 곳곳을 찾아다녔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여사가 금강산을 보고 남긴 “아!
 나는 그 아름다운 장관을 붓끝으로 표현할 자신이 없
 다. 진정한 약속의 땅인저! 진정코!”이라는 글귀가 결
 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

계곡을 바라 보니 정말 구슬같은 물방울이 끊임없
 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연이어 옥류담 바로 위에는 물
 이 가장 맑다는 연주담이 펼쳐진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맑은 물은 없으리라! 한굽이 한굽이 마다 펼쳐
 지는 절경을 감상하며 개성의 박연폭포, 설악산 대승
 폭포와 함께 우리 나라 3대 폭포로 꼽히는 구룡폭포
 에 도착하였다.

5억년 전에 생성되어 북한 천연기념물225호로 지정
 된 구룡폭포는 장쾌한 멋을 자랑하고 있었다. 구룡폭
 포 주위는 갈아놓은 듯 희고 매끈한 암벽들로 둘러싸
 여 있는데 오른쪽 암벽에는 효봉스님의 은사스님이신
 석두스님께서 화주(貨主)를 하고 海岡 金圭鎭이 썼다

는 높이 19
 m의 “彌勒
 佛”이 새겨
 져 있어 옛
 스님들의
 신심과 원
 력을 느끼



게 하였다. 상팔담으로 향하는 길은 가파른 철제 난간
 에 의지하여 길이 나 있는데 노스님들과 보살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다. 그러나 언제 다시 금강산을 보겠
 나며 서로 격려하면서 올라가신다. 산세 만큼이나 아
 림다운 모습이었다.

상팔담은 금강산 사진첩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보였
 던 명소중의 하나로 상팔담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구룡
 대가 구정봉 꼭대기에 위치한 관계로 상팔담을 내려
 다 보는것도 괜찮지만 금강산을 조망할 수 있는 더없
 이 좋은 장소였다. 구슬 처럼 아름다운 8개의 담소가
 구룡연 위에 있다고 하여 “상팔담”이라고 이름 붙여
 진 이곳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나뭇꾼과 선녀”
 전설의 무대이기도 하다.

내려올 때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탓일까, 올라올 때
 그냥 지나쳐 온 북측 안내원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니
 그들도 웃으면서 대답해 주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
 이 무사히 구룡폭포 순례를 마치고 온정리 휴게소에
 들러 간단한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휴게소 앞에 있는
 금강산 안내지도를 보니 비로봉, 관음봉, 세존봉, 지
 장봉, 미륵봉, 극락고개 등 곳곳이 부처님과 관계되는
 지명으로 금강산이 옛 스님들이 몸을 의탁해 수행하
 던 불국토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휴게소에서 북측에
 서 만든 단물(쥬스)을 한 잔 마시며 금강산 순례 첫날
 의 감흥을 즐겼다.

4일 금강산 순례 둘째날이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

· · · 法界莊嚴金剛山이여 願一見之平生心이라
 今日見聞別無事하니 萬壑松風千峰月이로다. · · ·

속선으로 갈아 타고 하선하려 했으나, 어제의 신계사에서 개최한 통일기원 법회가 북측에서 문제삼는 바람에 이날 신계사에서 법회를 보려 했던 나조에서 하선을 못하고 있었다. 하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스님과 신도분들은 총무원장 스님이 이끄는 대로 관세음보살 정근을 계속하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했다. 결국 나조에서는 신계사에서 법회를 못보는 것으로 하고 하선을 하여 만물상코스로 향하였다.

금강산여관이 있는 온정리를 지나 온정령으로 난 수십 굽이의 길을 통과하여 금강산 제일의 경치를 자랑하는 만물상 입구에 도착하였다. 입구의 만상정에서 삼선암으로 올라 만물상을 밑에서 올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오르니 이름부터 특이한 귀면암을 앞에 두고 만물상의 빼어난 절경이 펼쳐진다. 너무나 멋진 절경에 입을 다물지 못 할 뿐이다. 그런데 첫 번째 전망대에서 만물상으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어야 할 일이 생겨났다. 방장스님, 총무원장 스님의 건강을 염려한 현대측의 배려로 산을 오르지 않고 순례할 수 있는 해금강으로 코스를 변경하였다. 만물상을 오르지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방장스님, 총무원장스님, 시자, 현대 관계자만 태운 버스는 만물상을 벗어나 해금강으로 향하였다.

해금강으로 가는 길에는 동해안에서는 보기 힘든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다. 평야가 있다 보니 마을, 학교도 있고 논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기계사정이 좋지 않은지 소로 논을 갈고 일일이 손으로 모내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노인들은 보이지 않고 아주머니, 아저씨 특히 아이들이 모내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차에서 바라다 보이는 토질은 상당히 척박해

보였다. 북측에 비료를 보내주자는 운동을 펼치는 이유를 느낄 수 있었다.

바다 위에 금강산을 옮겨 놓은 것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해금강을 둘러 보고 삼일포에 도착하니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었다. 신라때 화랑들이 하루만 머물다 가기로 했으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삼일을 묵었다고 해서 삼일포라는 이름이 유래했다는데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풍경이었다.

전불교도가 참석한 이틀에 걸친 금강산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남쪽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금강산을 직접 보았다는 기쁨도 컸지만 분단의 현실을 절실히 체험할 수 있었고 그들의 순박함을 느꼈지만 굶주리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다. 그리고 북측에도 개방의 바람이 불면 금강산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기쁨보다는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끝으로 이번 금강산순례의 감흥을 표현한 방장스님의 글을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친다.

法界莊嚴金剛山이여 願一見之平生心이라
 今日見聞別無事하니 萬壑松風千峰月이로다.

법계를 장엄한 금강산이여
 평생 동안 한번 봤으면 그 마음 간절했네
 오늘에 보고 들으니 별 일이 없구나
 일만 골짜기에 솔바람 시원하고
 일천 봉우리에 달이 솟아 밝게 비칠 따름일세.

삶의 자유

원각(圓覺) / 대교

如依所數物 而有於能數
 彼性無所有 如是了知法
 譬如算數法 增一至無量
 數法無體性 智慧故差別

무릇 불교의 핵심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라 하겠다. 화엄경의 핵심도 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 윗 구절을 보고 그 '마음'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인식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數'라고 표현했다. 곧 '센다, 헤아린다'는 뜻이다. 인식하든 헤아리든 그것을 위해서는 대상이 있다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상이 없다면 인식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헤아리는 물건, 즉 대상에 의지하여 헤아림, 인식함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인식의 대상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어렸을 때,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걸려 있는 옷이나 천을 보고 귀신으로 착각해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분명 우리는 옷이 아닌 귀신으로 인식했고 그로 인해 놀란 것이다. 처음부터 옷으로 알았다면 놀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여기서 우리의 인식대상은 바로 귀신이였다. 비록 후에 옷인 줄 알았다지만 귀신은 있었는가? 처음부터 귀신은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미지, 영상이다. 옷인 줄 알아서 인식 대상인 귀신이 사라지면 그 인식도, 그 인식으로 인한 두려움도 사라져 안도감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인식의 주체도, 그 대상도 고정 불변한 體性이 없는 것이다.

숫자 세는 것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보자. 숫자를 센다는 것은 제한이 없다. 그것은 다른 말로 애초 한 생각에서 비롯하여 끝없이 갈래로 벌어진다. 흔히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말한다. 천수경에도 '煩惱無盡'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한량없다 끝이 없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끝없이 상속한다는 말이고 또 생각생각이 변천하여 그 가운데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增一至無量'이란,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개별적인 또다른 하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와 하나를 더했을 때 둘이라는 것이 되고, 둘에다 또 하나를 더하였을 때, 둘과 하나의 분리된 개체가 아닌 셋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하기

에 한량없다는 것이다. 만약 생각이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면 어찌 상속하여 변천할 수 있으며, 또한 한량없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體性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갖가지로 차별되나 체성이 없음을了知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性品을 보는 智慧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分別은 分別만을 낳을 뿐, 相을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相을 투과하여 性을 보는 것은 오직 지혜뿐이다.

다음에 마음을 화가에 비유해 설명해 보겠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생각해 보자. 깨끗한 종이 위에 갖가지 색으로 갖가지 모습을 그려낸다. 무엇을 그리든 화가의 마음에 달려 있다. 아름다운 호수 위에서 한가로이 뱃놀이하는 풍경을 그려내든지, 동네 아낙들이 싸우는 모습을 그려내든지 간에 모두 화가의 마음이다.

이와 같이 장엄한 불국토를 만드는 것도 이글이글 타오르는 화당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도 모두가 마음이 그려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화가가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는 것은 종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종이 위에 가득 그려져 있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마음이 무엇이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마음이라는 바탕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비어 있다는 말은 體性이 없다, 空寂하다는 말이다. 또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 할 때 종이 없이는 그릴 수 없다. 아무리 그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그릴 것인가? 또한 一切法도 마음의 바탕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 '唯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自由意志'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종이가 비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그럴 것인가는 화가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마음의 바탕이 비어 있고 모두가 자신의 마음이 짓는 것임을 안다면 자신의 '자유의지'란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殺活自在의 자유의지를 모두가 지니고 있으니 불국토를 장엄하든지 지옥의 고통을 맛보든지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의 삶이란 애초부터 자유롭다.

장마에 들어선 모양이다. 굳이 한마음 일으켜 그림을 그려본다면, 시원스레 내리는 비에 기와를 타고 흘러내리는 낙숫물이 힘차다.



불교의 미래를 생각하며

정산(定山) / 사교

“포교도 수행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선종에서 不立文字를 주장하며 教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더불어 布教에도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깨달아 앓아서도 포교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포교는 修行에 있어서 不可避하다고 봅니다.

옛날 부루나 존자가 성격이 모난 소나국 사람들에게 佛法을 전하려 했듯이 지금 우리 수행자들도 자비심과 인욕심을 갖추어 傳法을 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같이 깨달음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며 온 세계가 청정한 불국토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포교에 힘써야 할 대상은 모든 중생이다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대상은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1995년도 우리 나라 '인구 및 주택 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불교인은 전체 인구 약4,455만 명 가운데 23.2%를 차지하는 1,032만 명이라고 합니다. 개신교인은 19.7%인 876만 명, 천주교인은 6.6%인 295만 명이며,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기독교인은 26.3%인 1,171만 명으로 전체 기독교인의 수가 불교인의 수를 앞질렀습니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노인 414만 명 가운데 32.9%인 136만명, 50대의 34.7%인 138만 명이 불자인 반면, 60대 이상 기독교인은 23.0%인 95만 명, 50대는 23.0%인 92만 명으로 불교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신세대를 보면 그 상황이 반전된 것을 알 수 있는데, 10대 이하의 15.1%인 213만 명, 20대의 19.4%인 164만 명이 불자인 반면, 10대 이하의 27.5%인 388만 명, 20대의 25.5%인 215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불교인의 수가 전체 기독교인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수치는 노령화된 불교의 현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오래지 않아 불교인이 개신교인의 수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타종교보다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신세대의 신도 층이 적다는 이유는 그만큼 포교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결국에는 승가의 존립성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법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의 불교를 책임질 당사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사찰에서 어린이 법회와 학생회 법회를 하고 있지만, 총 사찰 수에 비해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 수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각 사찰의 주지스님께서 미래 불교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존 신도님인 노보살님들의 시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만 만족하고 포교와 장래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젠가는 세대교체가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불교를 믿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신세대에 대한 포교가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회를 운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법회운영을 위한 예산문제부터 교사 수급문제, 장소문제, 프로그램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법회 예산은 각 사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투자한 만큼 많이 얻는다는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법회의 경우는 타종교에서 하는 식의 물품공세가 좋지 않다는 평이 있지만, 실제로 어린이들에게는 불가피한 포교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정도가 넘치면 안되겠지요. 학생회 법회의 경우는 법회 운영에 필요한 약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 수급 문제는 학생회 법회의 경우는 거의 교사가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어린이 법회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체로 사찰 주지스님과 인연이 있는 분 또는 신심이 있는 불자님

께서 맡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장기간 동안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혼으로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대체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그때마다 교사들을 구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같이 운영하는 사찰에서는 그 쪽 교사들을 법회에도 함께 활동을 시킴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타 사찰은 대불련(대학교 불교 연합) 학생들과 연계를 맺어 선, 후배간에 교사를 연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학생회 학생들과 같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다소 힘듭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함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힘은 들지만 시간대를 조정하여 나누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회 프로그램은 요즘 일년에 두 차례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를 하니까 그 곳에서 배워서 할 수 있으며 컴퓨터 통신(천리안, 달마넷)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프로그램은 개발을 해서라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회 법회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불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년에 한 차례 자기 사찰 학생회의 회보 등을 만드는 것도 좋고, 윤좌 법회, 문학 토론 등의 청소년 취향에 맞추어 하면 더욱 적극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사찰에서의 문제점은 종단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므로, 종단 자체에서도 포교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더욱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 어린이 포교사, 청소년 포교사 제도를 만들어 교사 육성에 힘을 쓰고 빈곤한 사찰에 대한 포교 예산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포교 단체에 대한 지원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신세대 포교에 대한 문제는 종단과 스님과 중, 장년 신도님들이 모두 포교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가져야만 해결 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다니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이 훌륭한 佛法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의 미래는 신세대 포교에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국가를 위해서라도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심어주어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서 맑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묘각(妙覺) / 사집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일상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알게 된다. 이렇게 ‘안다’는 것은 눈과 형상이 만나고 귀와 소리가 만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만남이 없다면, 즉 우리의 의식이 홀로 아무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면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앎은 만남의 조건들이 달라지면 그 조건에 따라서 또한 변화한다. 나와 대상을 절대시하여 고정화된 인식을 하거나, 매순간 변화하는 그대로를 열린 마음으로 인식하는 등이다. 이러한 인식은 크게 지식과 지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식과 지혜를 올바르게 정의해 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불교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하고자 한다.

지식에 대한 고찰

지식은 인식의 주체이자 변화하지 않는 절대적인 ‘나’가 있다고 집착함으로써 대상도 또한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너를 구별하듯 대상을 낱낱이 분별하여 인식하기에, 지식은 모든 것에 따로따로 앎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지식은 차별된 세계만큼이나 무한할 수 밖에 없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보들과 지금껏 배워왔던 모든 앎은 이러한 형태의 지식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식이 분별되어 특성화함으로써 자칫 독립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보편적인 공통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현실에 대입하는 순간에 전혀 공

통된 원리가 없이 어긋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참다운 모습을 찾으려 한다면 차별된 세계의 무수한 현상과 사건들에 대한 지식을 먼저 습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 하여도 죽음 앞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너무 무모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지식의 추구는 갈증만 더할 뿐이다. 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의 밝은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하나를 철저히 알아버리면 세계의 실상을 모조리 관통할 수 있는 진리만이 우리가 바라는 바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지혜이다.

지혜에 대한 고찰

지혜는 인식의 주체인 내가 없다. 내가 없으므로 너 또한 없다. 대상도 고정 불변하는 어떠한 실체가 없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나라고 할만한,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다. 그러므로 나와 너, 대상을 분별하지 않는다. 무분별로 인식하기에 나와 너를, 대상을 분리하지도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 전체의 한덩어리로 인식하기에 주객이 둘이 아닌 불이(不二)이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공과 같이 비어 있는 모습이 공(空)이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게 되는 상호의존과 공존의 열린 세계로 어우러진 삶이며, 하나의 모습인 연기(緣起)이다.

이렇게 일체의 모든 법을 여실히 아는 것을 지혜라 하며, 이 지혜는 모든 세

계의 실상을 바로 관통하므로 이 세상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무아인 내가 무상인 대상을 인식하기에 연기인 세상은 하나일 뿐이다. 이 하나를 알면 세계를 열려 있는 그대로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며, 차별된 세계의 가지가지 모습도 본질을 하나로 꿰뚫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혜로 나와 실체가 있다는 고정되고 분별된 인식을 깨쳐야 한다. 즉, 현실 세계를 낱낱이 분리시키고 차별시켜서 나란 것으로 소유하고 갈등하며 서로를 소외시키는 닫혀 있는 마음의 온갖 고통을 여의고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의 참다운 모습을 찾으려는 이나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는 이 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추구하는 삶

지식과 지혜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나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재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의 삶을 어떻게 열어 가며 바뀌어 가는가 하는 일이다. 지식은 현실세계에서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 한계가 명확하다. 만약 이러한 지식에 집착하고 우리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모래를 찌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지식으로 인식된 삶의 방식으로는 우리들의 고통스런 현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으며 고통스런 중생계를 벗어날 기약이 없이 이 순간에도 생사(生死)에 헤매이며 끝없는 윤회를 되풀이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열려 있는 지혜의 길 즉 본연의 부처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일상적인 삶에서 매 순간마다 깨어 있으면서 여실히 알아 행(行)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이고, 열린 세계에서 하나된 삶을 사는 길이며, 지혜의 완성자이신 부처님이 되는 길일 것이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더위가 심함은 곡식을 익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일에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 시련의 극복은 주변의 관심과 온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더위와 경제난 속에서 더욱 삶의 고뇌를 느끼시겠지만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인내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힘든 이를 생각하는 자비심이야말로 불자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 사회가 어려울수록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가 계시더라도 신체장애로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등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장 아닌 가장의 위치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의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강원에서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뜻있는 분들의 성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그동안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항상하기를 기원합니다.

* 우체국 온라인 : 503490-0043410 ■ 예금주 : 소년소녀(황소연)

*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 540 - 930) 송광사 강원 능 원 (0661) 755 - 5302

♣ 불교자료 CD 판매

기초교리부터 경률론 삼장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한 방대한 자료를 작은 CD 한 장에 담았습니다. 불교에 관심 있으신 분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 주요내용 : 논문 500여개, 문화, 그림,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 레크레이션, 유적답사, 참고자료, 큰스님 법문, 불교관련 도서목록, 대만 불광사전, 아함경 색인프로그램 등.

■ 가격 : 오천원

■ 판매처 : 송광사 내 불일서점(0661-755-5305), 농협 : 615107-51-014821 (예금주 송광사)

♣ 강의(특강) 테이프 보급

우리 송광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강의(특강) 테이프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사 스님들의 명강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으시기 바랍니다.

- 카세트 TAPE ... 금강경 오가해 1~4 (85개) 지운 스님 / 120,000원
- 법화경 1~2 (33개) 지운 스님 / 50,000원
- 인도철학 (18개) 정연 스님 / 30,000원
- 차 이야기 (17개) 용운 스님 / 30,000원
- 유식 30송 (11개) 정화 스님 / 25,000원
- 비디오 TAPE ... 영성의 불교적 이해 (1개) 지운 스님 / 7,000원
- 설법하는 법 1~4 (4개) 진옥 스님 / 30,000원

■ 구입처 : 송광사 강원 서기 ☎ (0661)755-5302 ※ 통신으로 신청하셔도 보내드립니다.

■ 우체국 온라인 : 501676-0027541(가입자 : 서화교)

본 테이프의 판매 이익금은 불법홍포(佛法弘布)에 쓰입니다.

편집후기

모기에 물리고 땀을 흘리다 보니
정혜사 여름호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盛夏에 이
정혜사를 읽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조계산 대앞소리, 소담히
들으십니까?
얼마전, 정혜사를 창간호부터
한 권도 빠짐없이 모으고
있다는 보살님이 장학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런 관심과 정성들이 소박하고
진솔한 '정혜사'의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불자(佛子)가 되시기를
발원합니다.

❖ 지 이야기

獨坐幽篁裏
深林人不知

앞선 이의 발자국 따라
오늘도 길을 나섰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은
낮익은 도반
한 발자욱
내딛는 순간은
저의 영원입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혜국스님, 류인석, 송복희, 김갑숙, 양숙현, 김현정
나문희, 박동운, 유순근, 김정라, 조항심, 김미라
최도영, 신증녀, 권해숙(송광사강원 진주후원회)

장학금 기탁해 주셨습니다.

방장스님, 주지스님, 율주스님, 율원장스님, 현광스님,
중선스님, 지진스님, 현묵스님, 재무스님, 원통스님, 철
오스님, 학감스님, 무비스님, 정오스님, 지광스님, 회광
승찬스님 문도회, 향일암, 봉림사, 성불사, 운주사, 광주
자비원회원, 전국불일회, 배상현, 배준하, 조량현, 이순
득, 윤금자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가 '호'를 거듭할수록 여러 불자님들의 호평
과 때로는 질책으로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지만, 아직
은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맑은 음성을 전하는 데는 여러 불자님들
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 번호로 입금해 주시
고 '정혜사' 편집실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혜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2864-0205429-17

예금주 : 서화교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540-930)

송광사 강원내 정혜사 편집실

☎ (0661)755-5302

■ 주소가 바뀌신 분은 편집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 및 편입방부 안내

2543년 송광사 전통강원 신입 및 편입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 방부받는 반

치사미율의반	신입 00 명
치문반	편입 0 명
사집반	편입 0 명
사교반	편입 0 명

■ 자 격

- 사미율의반 : 신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치문반 : 편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사집반 : 편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사교반 : 편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방부원서	2부(강원 소정원서)
은사스님 추천서	1부
승적사본	1부
승려증 사본	1부
수료증(편입생).....	1부
사 진(3×4)	3매
건강진단서	1부
방부금	20만 원

- 준 비 물 : 대가사(비구), 만의가사(사미), 장삼, 바루
- 전형방법 : 서류, 면접
- 방부기간 : 불기 2543년 8월 25일 ~ 11월 18일
- 문 의 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 (0661) 755-5302

松廣寺 傳統講院



佛祖殿

久遠劫 衆生界에 約束하신 그 願力을
實現에 옮기시려 出現於世 하옵세라
娑婆를 극락으로 날느시련 五十三佛

佛祖殿

중앙에 주존불 삼신불과 좌우로 과거·현재·미래의 부처님을 상징하는 53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1684년에 창건, 현 건물은 1946년에 중수되었다.